東大時報

發行編輯兼印刷人 白性郁
編輯局長 金鎭福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②1685·1686

週刊
(四十號)
檀紀4289年7月4日發行
(一部 五十圜)

誠貪道者
攬受正敎
此近彼岸
脫死爲上
(法句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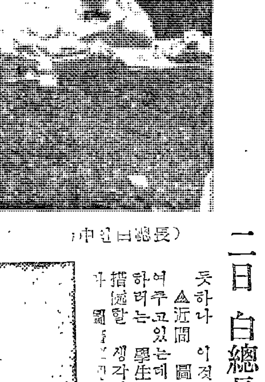
第2次新築計劃을構想中

本校總長 白性郁博士는 지난二日 本報編輯局長과의 定例會見에서 現在 거이 完成期에가까운 新校舍建築問題를 비롯하여 研究室復舊工事計劃 圖書閱覽時間延長 國家考試에 學生多數合格을 目的한 特別講座問題및 第二次校舍新築計劃構想等에 關하여要旨다음과같이言及한바있다

夏季休學中室內裝具完了
十月內로新校舍使用確實
二日 白總長新築問題에言及

▲新校舍建築은 現在 全工程의 四分之三假을 넘고있으며 十月內로는 實際使用이 可能할것으로보고 있거니와 夏季放學中에는 室內裝具가 거이 끝날 豫定이다 本來 基金이 確立되여서 始作한것이 아니기때문에 豫定보담도 若干 遲延된 感이 不無하지만 設計가 너무 雄固한 탓도있고 單一建物로서는 厖大한 坪數이기때문에 容易한 建築은 아니었다 또한 第二次 新築計劃도 現在 構想中인데 가장 時急한것이 圖書館과 研究室設備인것이다 本館工事가 끝나는대로 곧第二次計劃에 着手할 豫定이므로 在學生이나 卒業生들은 如斯한 學校當局의 計劃을 잘 알어주기를 바라는것이다

▲最初 研究室을 그대로 使用할 計劃이었으나 敎室이 狹少하므로 不得已 研究室을 大學講義室로 使用한것이다 十月에 新校舍에 收容된 後에도 다시 大學院研究室로 使用토록 復舊工事를 着手할 豫定이니 大學院學生들도 安心하고 現任施設을 最大限 效用해주어야할것이다 또研究室不足으로 圖書貸出에도 不便이있는듯하나 이것은 研究室의 準備로서 可能할것이다


(中의白總長)

▲近間 圖書館利用이 頻繁하게 增加를 보여주고있는데 日曜日에도 繼續開館하야 工夫하려는 學生들에게 便宜를 줄수있도록 特別措處할 생각이다 그러나 圖書館의 人員配置가 …

▲나로서는 數次에 걸처 國家考試에 多數合格토록 종용한바있는데 昨年에도 그러했거니와 今年에도 考試準備를 目的으로한 特別講座를 開設하야 同考試準備하는 學生들에게 便宜를 주련다 學生諸君은 現在의 배울수있는 特別한 機會를 最大로利用하여 國家的으로나 民族的으로 諸君들에게 무엇을 要求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이에 遺憾없도록 工夫에 全力을 다해주기를 바라는것이다 (사진 竣工을 앞둔 新校舍)

梁柱東教授에 功勞賞
學術院總會에서 選拔決定

(梁柱東教授)

지난 六月二十日 서울大學校 會議室에서 열린 學術院臨時總會에서 選拔決定된 四二八八年度學術院 第二回功勞賞受賞者로서本校大學院長 梁柱東教授가選拔되었다

이번의 功勞賞受賞者로서는『第二分科』(國文)에 梁柱東教授를비롯해서 李丙燾氏『第三分科』(史學) 鄭台鉉氏『第一分科』(理學·植物) 以上 三氏라는바 同授賞式은 오는 七月十七日 學·藝術院創立記念日에 藝術院 功勞賞授賞式과함께 擧行될것이라고한다

洪教授歸國講演
27日經濟學會主催

洪性今教授의 歸國에 關해서는 旣報한바 있거니와 本校經濟學會서는 同教授의 歸國歡迎을 兼하는 뜻에서 지난 二十七日正午부터 第一講堂에서 時別講演會를 開催한바있다

洪教授는 同講演을通하여 좋은 刺戟이 되어

夏季放學
自7月16日 至9月2日

敎務處에서 發表한바에 依하면 今年度一學期放學은 來七月十六日부터 同九月二日까지 約一個月半이라고하는데 開講은 九月四日부터이라고한다

國語教育 研究發表會

國語教育研究會에서는 지난二十三日下午三時半 大韓教育聯合會會議室에서 第五回研究發表會를 開催하였는데 發表題目및發表者는다음과같다

▲中學校國語科敎育目標達成度의 評價 金豪權 (서울師大敎育心理研究室)

▲國語國文學研究에있어서 李朝實錄의地位 康允浩 (陸士敎授)

躍進하는 吹奏樂部
씸포니等도合奏

情緒敎育宣揚一路의 本校吹奏樂部에서는 每週火·金曜日마다 合奏演習코 있거니와 앞으로 東國交響樂團을 編成計劃이라는바 現在 他交響樂團에 못지않는 技能을 向上시키고 있다고한다.

그런데 同吹奏樂部에서는 來二學期初에 있을豫定인 演奏會에 단연코 韓國初有의 好演을 보이리라는 自信을 보이고도 남음이 있다

國語國文學會 研究發表會

지난 二十三日下午三時 서울文理大講堂에서 國語國文學會第十七回巡廻研究發表會와 아울러 月例會를 開催하였는데 이번研究發表로는 鄭輝萬氏의『國語文法敎育의當面問題』이었다

學生證更新
七月十日限

學生處에서 알려진바에 依하면 過般 告示한 四二八九年度學生證更新手續을 未畢한 在學生全員은 오는七月十日限 無漏期日嚴守하여 同期間內에 更新토록 强調하고있다

當局側에 建議案도多彩
第二回學護團幹部會議서

지난 二十六日午前十時부터 本校學徒護國團室에서는 今年度第二回學護團幹部會議가 法政大學運營委員長 盧善景君의司會(議長代)로 各部長及次長의 連席下에 開催된바 있거니와 同會議에서는 지난二十一二兩日에行한바있는 議事日程에依하여『學校當局側에의『建議事項』으로써 興味伴淨한建議及公意를 본바있는데 다음은 開議案에通過를본 案件인바 學校側의充分한 反響及是正이 있기를 바라고있다는바 앞으로 當局과學生間의建設的인意思交流가 있을 것을 强力히 主張하고있다

▲體育 에關하여 卓光表(總務部長)君은『體育部面에對한施設未備는本校體育部의對內對外的向上發展에많은支障을招來하고있음으로앞으로學校當局은첫째運動場擴張과 各種運動器具를 備置해 줄것이며 室內運動施設도 具備하여주어야한다』라고主張한바 있으며

▲情緒 部門施設 에關하여 尹德基(UN學生部長)君은『情緒部門施設은情緒敎育을 充分히 받지못한 韓國的實情에 비추워 緊要한것이므로 암뿌를 工作部에서設置하여開講以前과 晝食時間에音樂을보내줄수있도록하여주기바라며 運動施設도 具備하여주어야한다』라고主張한바 있으며

▲郵便物 에關해서는 相互間 特別愼重을期해야할것임으로 郵便函의 技術的構想및 備置를 바란다』라고 提議한바 있다 이어 崔載福(學藝部長)君은

▲音樂室 에關하여『情緒部門施設로써는 校內 音樂鑑賞室이 가장緊要한 것이며 他大學校에서는 이미設置된 것임으로 特別한 計劃이 同部面에 있어야 된다』라고 主張한바있었다

▲圖書館 의 開館時間延長에 關하여 李慶柱(紀律部次長)君은『一種의 季節的인措置이기는 하지만 圖書館은 夜間에도 閱覽室만은 開館되어야할것이다 앞으로 高試應試者에게 便利提供이 可能하다면 이問題의 決定的인解決이 要求된다』고 附言한바 全體的인 同意를 본바있다

그리고 이어서 其他事項의 論議段階에 드러갔는데 가장 注目할만한것은 本校圖書館과 第二部講堂後面의居住民住宅의撤去問題이었던바 校內諸般施設及美觀問題에 總長任의 特別한言明을 期待키로하고 下午二時 閉會되었다

社說
本報의使命을 再論함

學園에서 發行하는 所謂 大學新聞은 一般社會의 新聞이 社會의 公器인것처럼 그大學의公器인것임은 두말할것없다 公器란 어느 一個人이나 一集團의 私紙가아니고 全體의 福利를爲한 言字 그대로 公器인것으로서 大學新聞 亦 그大學 全體의 利益과 向上發展을爲한 言論機關으로서의 말은바 使命을 다해야함은 더말할 나위도 없는것이다

大學新聞이 그大學의公器인所以는 그存在目的이 校內 어느一個人이나當局만을 支持宣傳하거나 그反對로누구를中傷이나謀害코저함에있는것도 아니고 다만 行政에關한迅速正確한 報道와恒時建設的인 提唱으로서 學術및藝術全般에 關한研究를 그첫째目的으로 하고있는것이며 둘째로는 敎授와 學生間에 學問을主로한·相互間의 提議및討論을通하여 親睦을 敦篤히하려는것이며 셋째로서는 學校當局과在學生間의 意思連繫로서 그意思交換이 目的인것이다

이와같은趣旨와目的의下에本報는再作年 七月부터 續刊이되여現在에 이르런것이다 本校에서創刊號를 낸것은 이미 七年前인八二年度이였는데 當時의 財政貧困으로 創刊號를 發行했을뿐그後 六·二五動亂도 있고하여八六年度 釜山避難學校當時에겨우 續刊一號를 發刊하고난後서울收復까지 不得已 續刊치못했든것인데 그後 白總長의 特別한 奬勵와 後援下에 八七年度七月부터는 처음에 月刊 다음年四月以後부터는 週刊으로서體制도 堂堂하게 大學新聞의 面目을 갖추게 되였던것이다

本報가 이처럼 發展되었음은 發行人이신 白總長은 勿論이거니와 新聞委員이신 梁柱東 崔鳳守 鄭斗石敎授및 同顧問이신 趙璣濬 張元圭敎授諸位의 全面的인 援助와奬勵에 因한것임은 勿論이려니와 本報의 育成發展에 陰으로陽으로 聲援 愛護해주시는 敎職員諸位와 在學生여러분임을 잊지않고 여기에滿腔의 謝意를 드리는것이다

然임에도 不拘하고 여기에大學新聞의 重要性을 再論케 되였음은 所謂 大學新聞의 獨自性과 그言論自由에 關하여 보다 낳은位置에 이끄러고함에있는것이다 大學新聞이 그大學全體의 公器임은 上記한바 있거니와 本報의 育成發展은 發行人·新聞委員은 勿論 敎職員及이다 本報를 通하여 學校運營當局은 在學生이나 卒業生들의 眞摯한 要求가 무엇임을 分明히 把握함으로써 이에 是正發展을 圖謀해야겠고 또 反面에 在學生·卒業生은 學校當局의 意圖가 어데있으며 또 무엇임을 잘알고 무턱대고 學校當局에 反抗이나 虛僞宣傳으로 말미암아 惹起되는 弊端이 學校發展에 크나큰 阻害임을 알아야하겠다

學園新聞으로서의 堂々한 威容와 體制를 갖춘 本報는 앞으로 學園에서의 言論暢達에 보다 活氣있는 編輯方針으로서 名實共히 大學의公器로서의 使命을 完遂하련다 이러기爲하여는 大學敎育 나아가서는 文敎行政全般에걸친 建設的인 提唱과 學術文化에關한 研究發表와 大學間(他大學)이나 敎授 學生間의親睦및 研究討論을 거처 學問發展에注力하려는것이다 그러함으로서本報할수있는 名實相符한 大學新聞이 되려는것이다

첫째로는 本報는 그內容에 있어 品位와 무게있는 高尙한 學園新聞으로서 다른 어데에서나 볼수없는 學生敎養及 敎授및學生의 研究論文에 主力을 주고 國內外學界消息의 迅速한 報道와 品位있는 隨想이나 體驗記 또는 良書紹介等으로서 獨特한 大學新聞의使命을다하려는것이다

本報의 向上發展은 本校의 發展을 促求할수있으며 學園의 民主主義發展에의 不可缺의 要素임을 再認識하는同時에 學園新聞으로서의 本報가 正常的으로 發展하려며는 以上에서 指摘한바와如히 大學新聞으로서의 獨自性과 學園의 言論自由가 十二分 保障되어야한다고 再强調하려는 意圖에서 敢히 一言하려는것이다

週間國際展望
『쉐피로프』의카이로訪問

『모로토프』를 물리치고 蘇聯外相의 자리에앉은 前푸라우다紙 主筆『쉐피로프』가 그의 첫外國訪問行脚으로서 埃及을 擇했고 特히 埃及의『스이즈』運河에서『英國帝國主義 軍隊의 마지막部隊』의 撤收하는 날을 記念하기 위한 行事에 參席한다는 名目으로 그가 埃及을 訪問하였다는것은 앞으로『쉐피로프』가 擔當할 새로운 蘇聯의 對外政策의 方向을 指示해주는 事實이라 할것이다

『쉐피로프』는 지난十六日에 埃及의 首都 카이로에 到着하고 二十二日까지 埃及에 滯留하면서『낫셀』埃及首相을 비롯한 埃及政府要人들과 一連의 會談을 開催한것으로 알려져있다 會談을 마친 다음 兩側은 그 結果에 對한 共同콤뮤니케를 發表하였을대 그 內容인즉 다만 恒例的인 修飾語로서 裝飾된 것으로서 兩側間에 具體的으로 如何한것이 討議되였으며 如何한 合意에 到達하였는지 窺知할수 없는것이였다 다만 그속에『반둥』精神을 云謂하고 있음은『쉐피로프』가『낫셀』의 英雄心理와 中立主義에 부채질한혼격을 엿보이고있다

이번『쉐피로프』의 埃及訪問에 際하여서 特히 注目을 끌었던 事實은『쉐피로프』가 埃及의『아스완·땀』構築을 위해서 拋大한 額의 借款을 約束하는 提議를 携帶하고 臨하였던것이다 이 提議의 內容인즉 蘇聯이 埃及의 現在『나일』江 上流에다 構築할것을 計劃하고 있는 空想的인 大工事인『아스완·땀』構築費로 거의 專擔함에 足한 十一億二千萬弗의 巨額을 六十年間 無利子로 償還할것을 條件으로 借款을 約束하는것으로서 알려져있다 그런데 發表된 共同콤뮤니케에서는 이와같은 蘇聯의提案에대한 受諾與否에관해서 何等의言及도없었다 通信報道는낫셀首相이 이와같은 蘇聯의 借款提議를 가장 有利한것이라고 看做한다하며 그를 今年늦은 여름에 있을豫定인 그의蘇聯訪問을 機會로해서 受諾할것을 示唆하고있다 이『아스완·땀』의 工事費問題는 現在 美·蘇兩陣營의 사이에서 이쪽 저쪽에다 秋波를 던지고있는『낫셀』이 마치 三角關係에선 妖婦의 貞操와같이 利用하고 있는것으로서 앞으로 이에對한 [illegible]가 如何히 決定될것인가 注目을 끌고있는것이다

美國이 이와같은 蘇聯의 對埃及奸計에대해서 如何한態度로 나오느냐 아직도 그反響을 살필수 없거니와 現在 美國은 勿論 英國·佛蘭西等에서 이번의『낫셀』『쉐피로프』會談에 特別히 關心을 表示하고 不安을 느끼고 있는 點은『낫셀』이 앞으로『아랍』世界가 擁하고 있는 石油問題를 圍繞하고 西方側에 대해서 如何한 態度로 나오느냐 하는것이다 蘇聯이 現在 埃及의『낫셀』에 대해서 特別한 經濟的犧牲을 무릅써가면서 好意를 베풀고있는 裏面에는 中立地帶擴大라는 蘇聯의 對外政策一般의 一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西方側을『아랍』世界의 石油資源으로부터 隔離시키려는 野慾이 한층더 그들을 刺戟하고 있다고 看做되고 있는것이다

最近에 英國이 過去七五年동안의 占領을 淸算하고 埃及에서 撤退하게 되자 美國을 비롯한 西方世界는 埃及과 平等한 基盤위에서 새로운 協力의 時代가 열릴수 있다는 希望을 가지고 出發하였던것이다 一九五四年 十月의 英·埃協定은『아랍』諸國과 土耳其가 攻擊을 받는 境遇 英國은 또다시『스에즈』運河를 占領할수 있는 權限을 認定하였으며 그 侵略豫想者는 蘇聯이었던것이다 그러나 最近에 埃及과 蘇聯의 關係가 急速히 親近해지자『낫셀』首相은 이 一九五四年의 英·埃協定을 不遠間 廢棄할것이라는 說이 떠돌아왔다 美國을 爲始한 西方世界가 今番의『낫셀』『쉐피로프』會談에서 或是 이 英·埃協定 廢棄에 대한默契가 成立되지나 않았나 疑心하고 있음도 當然하다 할것이다

左右間 蘇聯이 現在 埃及을 其他『아랍』世界에서 한층더 强力한 影響力을 갖도록 努力하고 그 結果 西方側과『아랍』世界의 石油사이를 끊어버리려 하고 있음은 事實이다 英國은 지난번『후』『불』兩人의 英京訪問時 石油資源을 잃느니보다는 차라리 싸울것이라는 決意를 表明한것으로 알려져 있거니와『델레스』美國 國務長官도 最近에 萬若 西方側이 中東石油資源을 利用하지 못하게 되며는 石油利權에 依存하고 있는石油生産國들을 위해서도 不幸하게 될것이라는明白한 警告를『아랍』諸國家에 對해서 發하였던것이다

『델레스』氏가 이와같은 現實的이며 焦急한 警告를 發한것은 事態가 相當히 惡化하였음을 意味하는것으로서앞으로의 埃及을 中心한 事態에 對해서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戰傷同志會創立總會開催
會長엔鄭萬重(法四)君

(寫眞은鄭會長)

不意의 六·二五動亂으로 學窓에서 軍門으로 勇躍入隊하야 滅共聖戰에서 名譽의 負傷을입고 除隊한 勇士를 包含한 學徒出身 戰傷同志들의 親睦을 敦篤히하고 學業의 精勵를 目的한 戰傷同志會創立總會는 지난六月二十四日一〇時 本校十三講義室에서 發起人主催下에 開催되였든바 同會員의 資格으로서는 正會員에 陸·海·空軍과 警察官으로서 名譽戰傷을 입은 傷痍戰傷 傷痍勇士로 하고 平會員인 參戰除隊將兵으로 하였으며 名譽會員에 前記 該當者中 卒業生으로서 三種會員制로 하였다고한다

그런데 創立總會結成을 본後 同會長 鄭萬重君이 말한바에依하면 이會는 戰傷同志間의 親睦을圖謀하는 以外의目的은 一切 排除되어야 한다고하므로서 同會의 件格을 뚜렷이 强調한바이거니와 이와같은同創立은 非單 本校에서 만이않이고 全國的인行事의 一部이라고 指摘한다음 다만 우리戰傷同志一同은 相互間의親睦과扶助로서 學業에加一層 情進할것이며 아울러서 本校發展에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날 創立總會에서 選出된任員名單은 다음과같다

顧問 總長 白性郁博士(推戴)
顧問 學生處長 鄭斗石敎授(推戴)
會長 鄭萬重(法四)
副會長 趙昌元(經四)
總務部長 裵明求(史四)
組織部長 李潤錫(經三)
宣傳部長 李鉉釆(生三)
監察部長 劉斗鉉(史二)
敎導部長 朴明浩(英四)
戰傷部長 朴寅和(英四)

그런데 이날의 討議事項은 親睦會開催문제 學業所屬의相互扶助문제 會員相互間의 身上保障 및大同團結문제 其他必要하고 認定되는 諸事業문제 等이였다

體育部長에 趙泰鴻君

學護側에서 알려진바에 依하면 이번 體育部長을 更迭하였다는바 新任에 趙泰鴻君(政四)이 正式決定되였다고한다 그런데 前體育部長은 趙明煥君(農四)이였든것이다

演劇競演大會서 趙哲文君에 演技賞

文敎部主催 第一回男女大學競演大會는 旣報한바 지난二十三日閉幕되였거니와 同大會施賞式이 二十八日 市內市廳會議室에서 擧行된바 本校 趙哲文君이 個人演技奬勵賞을受賞한바있으며 團體賞은서라벌藝大 新興大學에게授與되었다

社告

本報는 앞으로 夏季放學中은 休刊하고 九月五日(水)부터 續刊키로되였아옵기玆以謹告하나이다

政治講演會大盛況
28日

其間 校內 諸學會의 活動及行事에 一般의多大한 評判이 高揚되고 있는것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지난 二十八日 下午一時부터 第一講堂에서 本校政治學會主催 校內政治學術講演會는 立추의 餘地없이 一般及知識階級으로 일대 人山人海를 이룬바 있다

同講演會에는 現民議員이며 民主黨宣傳部長인 曺在千氏와 民議員이며 民主黨政策部長인 金永善氏等이 招請되었던바『韓國政治와 政策의 回顧와 展望』이라는 演題로 金永善氏의 二時間講演이 있은다음『憲政八年間의 總決算』이라는 至大한 關心演題로서 曺在千氏의 政治家的 批評講演이 下午四時半까지 繼續되었다

그런데 同講演會는 演士에게 政治學會側 要[illegible]이 있은다음 手續에 閉會하였다

(사진·同講演會光景)

在學者徵集繼續延期
暫定令이裁可公布될때까지

지난二十七日 文敎部當局에서는 在學生에 對한 徵集에 關해서는『在學者 徵集延期暫定令中改正의件』이 裁可公布될때까지 兵役法第四十條에 依據해서 全般的으로 在學生에게『繼續延期』가 施行된다는 通牒을 各大學總長 및大學에準한各種學校長에 發한바있다

同通牒은 六月二日字로 國防部長官이 陸軍總參謀長에 示達한內容이 添付되어있었는데 그의內容을보면

徵集該當者(八三一八九)에 對하여는 別命이 있을때까지 在學者徵集延期 暫定令第三條 同十七條의 項目에依하여 市邑區長으로부터 提出된 在學者名簿및 國防部長官이 示達한 學生名簿에依據하여 入營延期措置를 取한다

八九年度新入生에 對하여는 兵事區司令官이 各學校長으로부터直接在學者名簿를 받아서 延期措置를한다 在學者中 徵集年度八九年度適令者에 對해서는 一般壯年과 區分없이 混合하여 徵集措置를 取한다

六·二五紀念式嚴肅
滅共統一의決意도굳게

悲憤의날六·二五 六週年을 맞이하여 政府에서는 六·二五記念式을 上午十時부터 中央廳廣場에서 嚴肅히 擧行되였는데 이날記念式에는 李大統領을 비롯하여 政府要員및 學徒護國團 社會團體 其他 一般市民代表들이 參加한가운데 滅共統一의 決意를 새롭게하고 上午十一時頃 式을끝마치었다 그리고 이어서 三軍軍樂隊를 先頭로學徒들의씩씩한 市行進이있었다

史學會서 研究發表會
29日

本校史學會서는 지난二十九日 下午一時半부터 第八講堂에서 第十三回學術研究發表會를 가졌는데 同發表會 發表者及題目에는 本校講師인 安啓賢氏의『羅代僧官制度에 對한一考察』과 洪翰敎『黎明期의 新羅』權永重『興遼國에對한小考』等이었거니와 多數卒業生及在學生이 參席한가운데 下午四時半頃 終了되었다

△追加告示

本報第三十八號에 揭載된 一面記事本校文理科大學에 敎職科設置가 文敎部로부터 認可된設置科目中 數學科가 漏落되였음으로 茲以追加告示함

數學研究會서 研究發表會開催

지난 三日 午前十一時부터 第六講義室에서 數學研究發表會가 開催되었는바 同發表會에는 本校數學科講師인 洪性海先生이며 題目은『現代數學發展의 史的考察』이었다한다

卓球部
서울代表에 趙君
全國部市對抗戰에

旣報한바있는 第十回全國部市對抗서울市豫選大會에 本校選手 趙漢敎(化一)君이 市代表로 추천되었다 卽同大會는 來七月七、八兩日間에걸처 釜山에서 開催될것이라는바 本校卓球部의 榮譽인 同大會에는 至大한 關心을 모우고있다

올림픽派遣選手選拔大會
本校水泳部參加

第二回各級學校對抗水上競技大會에서 堂々最高得點으로서 優勝한바있는 本校 水泳部에서는 來七月六·七·八日에 걸처 開催豫定인 第十一回全國各級學校對抗水上競技選手權大會兼올림픽派遣選手 第一回選拔大會에 最强의 메버로써 參加하리라 한다 同大會는 市內서울運動場풀에서 열린다고하는데 一般水泳界에들의 初夏의 일대關心꺼

學會長의辯
第8回 農學會篇
農村後落性을革新하자

躍動하는 地上萬物 精氣를 안고 大自然의 甘味로운 士氣를 呼吸하는 우리農學徒는 韓國農村을 復興하려는 한사람의 農學徒로서 農民의 기꺼운벗이되여 農民의 先峰으로 그들의 生活向上의 追求를爲하여 全國에 散在하고있는 農學徒全員의 뭉침이 없는 誠實한 農村勇士의 資格을 갖이고 農村에 對한 學問과 技術로서 農民을 이끌수있는 貴高한人格을 培養하기 爲하여 꾸준한 배움의 途上에 邁進함이였다

이제 미천한 本人이 學會長에 登壇하니 여러學友가 힘써 除草하고 거름을주어 날로 成長하는 힘찬 움기를 暫時나마 榮養失調가 되지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한층 焦燥할뿐입니다 그러나 農學會員 여러분의 뜻을 들어 充實히 로 이바지하고저 몇가지 事業方針을 세워보기로하며 이는 오로지 農學會員諸兄의 協助와指導를 아울며 學長先生任以下 여러先生任들의 物心兩面의 至大한 後援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것입니다

먼저무엇보다 重要한것은 學會誌『農原』의運命입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制約된 隘路를 打開하고 着着 進行中에 있읍니다 그리고 學術講演會과 會員研究發表會를 隨時로 開催코저하오며 이미 每週日 上映되어왔든『文化·科學映畫』의 映畫를 實施하여 世界科學發展相을 習得케하는데 主力하겠읍니다 다음 農學의 生命인 實習에 重點을 두어 全學會의力量을 傾注할 豫定입니다

顧컨데 여러 會員各位께서 不斷한 忠告와 協調를 바라면서 以上몇마디로 約筆한다 (會長韓盛愚)

選擧批判과政界展望(座談會)
柳光烈·成仁基·李寬求·曺□□·朱耀翰
삶아가야할 나의길……張勉
民主黨의 制勝以後……鄭一亨
Fair-Play論……주요한
外國서본우리나라選擧 國際論壇
申翼熙氏急逝와景武臺騷擾事件·張勉博士當選 民主發展의示顯·申翼熙氏逝去·野黨의精神的勝利·景武臺앞 衝突件·韓國正副統領選擧結果
生活樣式改善과 知識層……石榮鶴
文敎政策의 貧弱點……李恒寧
體育施設과 레크레이숀……金英一
美國現代詩와에즈라파운드……金環麟
美國留學小考……李璋鉉
書庫에서 살아온 27年……李宜瑛

새벽
7月號 300환

[詩] 恩響 津 彌勒……설창수
宴……張壽哲
喪딸 妻四 以兄 後弟……崔泰應
短篇 答 辯……李璇求 桂銘默

韓國農業政策의指向……蔡丙錫
農村經濟의史的考察……崔虎鎭
農村窮乏과農政盲點……趙東弼
헤드·하트·핸드·헬스……金雄珏
덴마―크의農村相……金賢奎
韓國農村과文化……李無影
美國援助와韓國農業……高承濟
民主主義와國家主義……梁熙錫
西洋文化의攝取方案……趙奎東
學問·哲學·眞理……金亨錫
哲學의任務……徐千淳
改革과和解……金錫穆
人形의집受難……李俊禮
間島追憶……尹永春
美國人과의對話……金善亮
無黨의辯……崔大鎔
孫貞道牧師님……金聖
嶺南樓의詩情……李鍾
趙炳玉博士論……金龍
韓景職博士論……吳制道
호루몽과 腦下垂體·殖……盧德三
南岡 李昇薰先生(續)……咸錫憲

美國的學者

(3)

R·W·에머슨
李浩成 譯

확실히 옳바른 讀書法은 있다. 그것은 嚴重히 從屬的位置에 놓여질때 비로서 그렇게 된다。思考하는 사람은 자기 機具에의하여 屈伏되어서는 안된다。書籍은 學者의 한가한때를 위한 것이다。學者가 직접 神을 읽을수 있을때에 他人이 그것을 읽었을 때의 記錄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노릇이다。허지만, 暗黑의 時機가 올때(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 太陽이 숨고, 별이 그 빛을 거둘때, ―우리는 그것들의 빛에 의하여 點火된 燈에 의지하여 다시 새벽이 되는 東녘에 우리들의 발을 돌린다。우리가 듣는것은 말하기 위해서다。아라비아 格言에 曰, 『無花果는 無花果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最善의 書籍에서 그 집어내는 快感의 特色, 이것은 顯著하다。이런 書籍은 우리에게 이것을 쓴 사람도 이것을 읽는사람도 同一本性이라는 信念을 준다。偉大한 英國詩人의 한 사람 『초오서』든가, 『마아벨』이든가 『드라이덴』의 詩를 우리는 아주 近代的인 기쁨을 가지고 읽는다, ―다시 말하면 大部分은 그들의 詩句로부터 『時間』이라는것을 全部 抽出하였기때문에 생기는 快感을 느끼는 것이다。二三百年前 어느 過去의世界에 산 이 詩人이 現在나 自身의 마음에 密切히 가로 놓여있는 것, 나 自身도 역시 거의 思索하고 말한것을 이야기하고 있을때에, 우리의 驚異의 기쁨에는 조금 畏敬의感情이 섞인다。그러나 이點에서 萬心一體라는 哲學說에 부여되는 論據에 대해서는, 우리는 當然히 어떤 豫定의 調和를 想像하고 태어나려고하는 心靈에 대한 一粒의 豫見과, 그들의 將來의 必要케 對備하는 貯積의 약간의 準備와를 想像하였으리라, 마치 蟲類에도 죽음에 앞서 자기들이 결코 보지못한 幼蟲을 위하여 먹이를 쌓아둔다는 事實이 認定된다고 하는데 그것과 매일반이다。

나는, 系統을 세우기를 좋아하는나머지, 또 本能을 誇張하는 나머지, 총총히 書籍이라는 것의 價値를 떨어트릴려고 원하는 것은 아니다。사람의 肉體는 어떠한 飮食에 의하여서도, 설사 그것이 풀을 끓인 것이든 구두(靴)가죽을 삶은 국이든간에, 키워질 수 있듯이 사람의 心智는 어떠한 知識에 의해서도 키워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또 印刷된 書籍紙에 依한 것 外에는 거의 하등의 知識을 얻은 일 없는 偉人 英雄이 存在하고 있다。나는 그저, 이런 飮食에 견디기 위해서는 強健한 頭腦가 必要하다고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글을 잘읽으려면 創意家여야한다。格言에 말하듯이 『인도諸島의 富를 가져오려고 願하는 者는 인도諸島의 富를 옮겨갈 수 있는 者라야 한다』。그러나 創造的著作이 있듯이, 讀書에도 創造的讀書가 있다。마음이 努力과 創意로 緊張하고 있을때에는 우리가 읽는 어떠한 책의 페이지도 多種多樣의 暗示를 가지고 빛나게 된다。文章이란 文章은 모두 二倍의 뜻이 있고, 그 著者의 見識은 世界만큼 廣大한 것이 된다。그때 또 見眞者의 見眞大悟의 時間이 極히 짧고 또 鈍重한 日々月々에는 稀有한 것처럼, 그것의 記錄도 아마 그의 著書의 最少部分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이것은 항상 사실이다。分別力이 있는 者는 그의 『플레이토』나 『쉑스피어』에서 다만 이 最少部分만을 읽는다―正眞한 神託이 吐露된 곳만을 읽는다―其他의 部分은, 설사 『플레이토』의 著作 『쉑스피어』의 著作에 몇갑절된다 할지라도 몽땅 버리고 만다。

무엇할 것도 없이 賢明한 者에게는 진정 不可缺한 讀書의 한 範圍가 있다。歷史및 精確한 科學은, 그는 苦[illegible]으면 안된다。매마찬가지로 學校에도 各各 不可缺한 職分이 있다―初步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다。그렇지만 學校가 練習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지않고서, 創造하는 것을 目的으로 삼을때, 그리고 멀리로부터 여러가지 天才의 모든 빛을 그 반겨하는 講堂에 모아 놓고 熱火를 集中함으로써 靑年의 心胸에 불을 질러 놓을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크게 소용될수 있는 것이다。

思想과 知識은, 設備나 儀飾이 아무 소용도 없는 本性을 가지고 있다。敎授服이나 黃金의 都市를 지을만한 基金도 匹敵할 수가 없다。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美國의 大學이 年年 그 財産을 느린다 할지라도 社會的重要性에 있어서는 退步할 것이다

三、 세상에는 一種의 說이 行하여지고 있다, 即 學者는 응당 隱遁者며 虛弱者여야한다고―마치 펜나이프가 도끼의 구실을 하지못하듯이, 如何한 手工業에도 公的勞役에도 不適當한 者라야만 한다고。所謂 『實際家』들이 思索家를 冷嘲한다 마치 그들이 思索하기 때문에 即 『보기』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듯이, 나는 일찌기 이렇게 말하여지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即 僧侶는―그들은 항상 그 時代의 다른 어떤 階級의 사람들보다도 一般的으로 學者지만―婦人으로써 人事되었으며, 또 그들은 男子의 거칠은 自發的인 會話를 듣지않고 오로지 지껄내는 심심풀이 이야기만을 듣는다고 僧侶에는 이따금 實際로 公權을 갖고있지 않는 者가 있다。또 그들의 獨身生活을 辯護하는 者도 있다。이것이 學者社會에서도 事實이 되는 限 그것은 公正한 賢明한 것은 아니다。活動은 學者에게 있어서는 從屬的인 것이지만, 不可決한 것이다。이것이 없으면 그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이것이 없으면, 思想은 결코 成熟하여 眞理가 될수 없다。世界가 美의 구름으로써는 앞에 걸려있는 限, 우리는 世界의 美를 一볼수가 없다。不活動은 即卑怯이다 허지만 學者로서 勇猛心이 없는者는 있을수 없다。思想의 前提, 思想이 無意識으로부터 意識으로 옮아갈때 지나가는 過程, 이것이 活動이다。나는 다만 내가 살아온 만큼의 일을 알고있다。一見하여서 우리는 누구의 말에 生命이 들어있고, 누구의 말에 없는가 하는것을 안다。

世界―이 靈의 구름 即 『他我』(other Me)―는 周圍에 널리 퍼져 있다。世界의 魅力은 나의 思想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나自身과 親熟케 하는 열쇠다。나는 熱心히 이 反響의 소동속으로 뛰어들어간다。나는 곁에 있는 者의 손을 쥐고 함께 피로워하고 함께 일하기 위하여 그 圓속에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無言의 深淵이 소리를 내어서 이야기 할것이라고 本能에게 가르침을 받았기때문이다。나는 秩序에 徹하고 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린다。나는 擴大하여가는 生活의 圓環속에서 그것을 處理한다 내가 經驗에 依하여서 人生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 그만큼 나는 不毛의 荒野를 征服한것이다, 即 거기까지 나는 나의 存在, 나의 領域을 넓힌 것이다。나는, 아무도。그 神經때문에 또 그 낮잠때문에 自己가 關與할 수 없는 活動에 關與하지않아도 좋다고 하는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活動은 그의 談論에 대해서는 眞珠며 紅玉石이다 苦役 災禍 憤激 窮乏은 雄辯과 智慧를 주는 敎師다 참다운 學者는 모든 活動의 機會가 지나가버리는 것을 힘의 損失인양 애석히 여긴다 그것은 知力이 그 훌륭한 結果를 鑄成하는 原料다 經驗이 思想으로 變化하는 過程이 또한 이상한 것이어서 바로 뽕나무잎이 繭子로 變化하는것과도 같다。이 製造는 恒時 進行하여가고 있는 것이다(繼續)

R·W·EMERSON

하늘나라의옷

W·B·예이츠
박수훈 역

금빛 은빛으로 무늬 짠
하늘나라의 수 놓은 옷을
밤의 낮의 어스름
푸르고 호미한 거먼옷을
내가 갖고있다면
나는 그 옷을
그대의 발밑에 까디오만
나는 가난하여서
갖인것은 꿈밖에 없어서
나의 꿈을 당신의 발밑에 펴놓았으니
살픈히 밟아주옵기를
꼭 나의 꿈위를…

教育投資의 效率 (下)

洪 性 囿

一生에 近處 邑來景 쪼차못하는 村婦들。이들에게 通信網과 輸送網의 便宜가 提供되고 工場의 門이 그들을 불을때 그리고 그러한 與件에 適應할 能力을 敎育받았다면 敍上의 모든 田園에의 鄕愁는 있을수가 없는 것이다

(6) 敎育과 文化

三綱五倫이 封建制度의 素地위에 發生하였고 治國平天下의 理想이 『킹담』體制下의 思想이라는것을 누구나 否認못한다 그렇다고 仁義나 忠恕같은 人倫을 時代的인것으로 排斥하여서는 안될것이다 또는 王家財家였은 托鉢도 말라는 聖訓은 『오을』街의 世界的繁榮과는 너무 距離가 멀다 그렇다고 上求菩提·下化衆生의 慈悲로운 菩살道는 버려서는 안될것이다 經濟生活上의 變動이 創生產力의 發展에 따르는 社會體制와 人間生活上의 變貌는 自然히 文化型態의 變樣도 招來하며 그 反對로 낡은 文化型態는 새로운 物質的 發展과는 性格上으로 背反된다는 것이 歷史의 敎訓이다

三綱五倫은 近代資本主義精神의 基柢인 個人主義와 相馳되며 具體的으로는 個人의 生產活動을 抑制하고 따라서 國民經濟의 富의 蓄積을 抑制한다 大家族扶養의 重荷를 지니며 또는 父祖의 因襲的 拘束下에서는 個人의 動態的인 勞動力發揮는 不可能하다 或은 物慾을 超越하고 賤視하므로서 解脫하야는 求道發心의 心理的 態度를 가지고는 儒子의 論理때문에 佛性開顯의 發願을 영못하고만다 이러한 價値上系列에서의 經濟生活에의 無視는 人口의 能動的인 經濟發展過程에의 參與를 否定的으로 만든다 社會特有의 個別的인 文化를 拒否하는것이 아니라 그 內在的인 性格에 自然的인 變化를 하지않고서는 이것이 發展上의 障害要因을 形成한다는 말이다 基督敎도 近代社會發展에 順應한 史例가 있다 이런일 西歐社會에 이루어진것은 歷史의 內在的인 發展에서 自然發生的으로 實現된것이고 우리가 지금 겪고있는 過程은 意識的으로 遂行한다는 點에 많은 『苦痛』과 또는 『犧牲』이 同伴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다운 君子나 佛弟子가 되기위하여는 凄慘한 『가난』과 『不幸』을 하루라도 빨리 于先 免하는것이 當面의 問題임은 確實하다 여기에 말그대로의 敎育이 必要하며 敎育의 扶植없이 우리갈은 우리 思惟形式의 慣性을 效果的으로 벗어나서 배부른 『聖』을 찾을길은 없어보인다

(7) 敎育과 社會體制

恒用 學例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대로 看過하기 쉬운 社會體制가 가지는 經濟發展에 對한 反對要因的 性格은 여러 角度에서의 包括的이고 論理的인 解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印度의 身分制度 汎亞細亞的特徵인 大家族制度 阿弗利加의 部族社會가 지니는 經濟生活의 固陋한 閉鎖性等 經濟構造의 革新을 阻害하는 傳統的外廓이 一般的인 後進社會의 通性이다 文化人類學―社會學的 究明을 側面으로하면서 經濟的觀點에서는 『經濟의 內生的인』하나의 要因으로 이러한 制度分析도 하여야하는데 위르는 價値的인 判斷論識와 더불어 우리가 기인時間을 그속에서 살어온 家族制度를 하루速히 『個人主義 主義的인 土臺의』社會體制로 革新을 하여야한다 한면에 있어서의 效率實現과 마찬가지로 이面에 있어서의 敎育의 『革新的意味』는 가장 큰 價値를 가지는것이며 Franis L.K.HSU 敎授行한 日本과 中國 社會制度의 經濟的分析 같은것은 그 對象의 根據가 우리와 恰似한 만큼 많은示唆를 던져준다 經濟內部의 資源開發(自然資源·人的資源)과 竝行하여 同時에 이룩되어야할 制度的問題의 眞正한 解決은 『眞正』한 敎育上 努力에서만 얻어질수있는것이다

(8) 敎育과人口의 生活態度

우리의 慣性的인 心理的問題―生活態度가 經濟發展에 따라 아니 그보다도 먼저 變改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共通된 論點이 되어 있다 制度의 革新이 思考의 形式과 內容의 革新을 前提로 하듯이 經濟에 內生的問題로서도 心理的인 積極的支持와 追求가 經濟的價値위에 놓여지지 않는 以上 經濟自體의 『積極的』 發展은 期待할 수가 없다 『形式的인 制度上의 安定』을 『못로오』로 하여 혹이 『實質的인 安定』을 우리는 默視하기 쉽다 物質的인 基礎위에 安固히 자리잡지못한 우리의 制度와 觀念形態는 現代에서 살 性格의 것은 못된다 生活의 便宜가 없이 또는 文化資料創成의 物質的條件이 어떻게 『聖』을 갖고 『高貴』로운 『精神文化』를 主張誇示할 수가 있겠는가 勿論 物質的인 生活條件이 우리의 充足條件은 아니며 더구나 價値全體는 아니지만 『果敢한』 慣習的 價値序列의 高調를 끝내 脫皮하지 못하는 限 우리의 生活價値도 結局은 虛僞에 떠더지고 生理的인 飢渴로 萬事休가 되고 말 것이다 敎育이 지닐 이러한面에서의 所能도 만 分野에서는 實現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9) 敎育과 政府機能

經濟發展을 위하여 政府가 于先하여야할 抽象的目的은 『Frame-Work for Develop ment』이다 그다음의 具體的努力目標는 經濟發展에의 모든 誘因을 形成시켜주는 일이다。그리고 난後에 할수가 있고 하여야 할 境遇에는 하여야 할일이 政府企業이나 또는 直接統制의 領域이다。이렇게 國民經濟構造의 發展의 構圖를 그 總體的인 『틀』形成에서부터 具體的統制또는 直接 官公企業經營에 이르기까지 實現하여 가려면 『限없이』 期待되는 政府機能遂行의 條件은 『Good Administration』이며 『Good Stuffing』이다。卓越한 經倫과 經營能力이 없이 先進國의 政策內容만 模倣하면 『政府能力』에 부쳐서 쓸데없는 錯亂과 浪費나아가서는 國民經濟의 破壞까지도 갖어온다。『Good Stuffing』의 政府를 가지기 위하여 敎育과 學界가 져야갈 切實한 責任은 엄만 力說하여도 모자라지 않다。어찌하여 後進國은 하나의 例外도 없이 政府가 腐敗되고 그 能率이 오르지 안는가。後進國 經濟뿐이 아니라 그 敎育水準과 內容亦是 後進 段게에 있기 때문이다。政府와 政界의 是正을 近視眼的으로 焦燥하게 떠드느니 보다는 敎育投資를 많이하자。敎員과 學生을 尊貴하게 待接하자。

(10) 敎育은全部다

위에서 略述한바와같이 經濟發展 또는 社會制度의 革新 政治의 改良 나아가서는 文化全體의 向上은 그 根本動因이 아니라 그 變移過程自體도 敎育의 媒介없이 成立안된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우리는 世界에서 第一 가난한 社會에 살고 있으며 가장 沈滯된 文化的雰圍氣속에서 呼吸하고 있다 『영성하게』 생각하고 『되는대로』 實다 아주 『밑바닥』부터 意識을하자 그러한 努力이 敎育이다 그렇다고 敎育이 來日의 期待만을 가진 緩慢한 現實觀照는 아니다 敎育은 그대로 또한 實踐이다 惰性化된 거리속에서 革新的인 見識을 머리속에 간직한 젊은世代의 行列이 漸次로 늘어갈때에 그것은 그대로 現實을 改造하는 實踐的 意味를 가진다 思考形式이 달러지고 心理的인 內發性이 새로운 傾向으로 나타날때에 그것은 그대로 『發展』인것이다 이루 例證을 하기에 숨음을 가진다 아무튼 하고싶은 말마되는 우리가 할일은 敎育이 全部이며 敎育은 그대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制度的環境 文化形態와 內容을 發展的으로 改造하는 方向에 直結되며 敎育의 充實 그自體가 그대로 모든面의 發展이라는 點이다

(本校敎授)

政治時評

「政治道德」

金 基 洙

國家社會에서나 民族社會에서나 그곳에는 歷史的過程에서 國民精神또는 民族精神이라는것이 生成되고 있다 그의 水準問題는 不問하고 社會意識이 그러한 精神속에서 胎動되는것은 疑心할바 없다 個人의 道德觀念은 이 社會意識과 相互作用하며 發展의 過程을 이루고 있다고 볼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社會現實에 對해서 社會人이 意識 또는 自覺하고 있느냐 無意識하나에 달나서 社會發展에 影響이 分別된다고 본다 特히 社會指導 政治人이 大衆的인 社會作用을 할때에 있어서 問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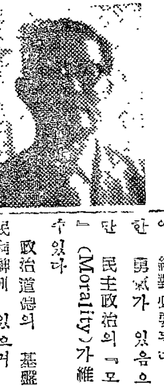
國民精神은 客觀的이고 固有的이고 公平的이고 理念的이다 그것은 一個人인 社會人으로서 左右할수 없는 社會基盤이다 萬若 어떠한 社會人 또는 社會集團이 그것에 違反하는 行動을 取하게되면 容恕없이 打倒될것이다

二

一般國民은 上述된 國民精神을 唯一한 벗으로 삼고 살고있다 家庭에서 血族에서 同胞에서 祖上과 鄕土에서 그것을 呼吸함으로써만 親密性을 가지고 나갈수 있다 그런데 一般政治技巧家들은 自己個人의 利慾만을 일삼고 國民社會에서 超然한듯 一般國民과 同一한 呼吸속에서 離脫하여 社會作用을 하고있다 그의 作用은 社會相互作用에있어서 結合作用이 아니고 分離作用을 하는것이다 그것은 社會에있어서 離婚 切緣 犯罪 脫獄 反亂과같이 社會形成에있어서의 反動作用이다 이러한 反動作用의 原因은 그가 國民精神을 意識치않고 또는 無視하고 行動하기때문이다 그럼으로 政府가 國民精神에 基礎를 갖지않는다는것은 그것은 個人의 勢道行事에 지나지않는다 一般國民이 一段 政治人으로 昇格이되면 그는 一般國民으로서의 意識을 忘却하고 自己가 支配者라는 感覺에 從이되는것은 무슨原因일까 勿論 그것은 個人의 倫理性의 基本問題이지만 그社會에서 그러한 政治人을 所生하게된다는 것은 結局 政治道德의 水準을 말한다고 본다

三

元來 政治道德은 國民精神의 所産이다 政治作用이 國民精神의 發育과 發動에 있지 않는 限 그것은 恒常國民社會를 破壞하는것뿐이다 國家社會에서 政治道德이 確立되어 있지않는限 그國家社會는 恒常不安하며 維持紊亂을 免치못한다 『마키아베리』의 『君主論』은 그當時의 佛蘭西社會의 政治道德의 腐敗性을 指摘한것이라고 볼수있다 過去의 무슨 政治思想史 政治史는 國家社會의 政治道德의 功罪를 말한것이다 後進民主國家에서 政治道德을 確立할나면 干爲 各國民이 自覺해야 된다 여기에는 各個國民의 水準敎育이 基本이 되지만 그곳에는 恒常個人個人의 勇氣―政治腐敗에 對한 抗拒力이 絶對必要된다 그러한 勇氣가 있음으로써만 民主政治의 『모랄티』(Morality)가 維持될수 있다 政治道德의 基盤은 國民精神에 있으며 그것은 國民精神에 依하여 育成되며 相互發展을 할수있다 二十世紀의 文化는 政治가 國民精神에 依하여 操作되는것을 말한다고본다 (一九五六、六、二十九)



經濟時論

國際收支改善策

國際收支라고 함은 一國의 對外經濟關係에 있어서 一定期間에 現實的으로 受拂된 貨幣額이 얼마나 되는가 即 一定期間 (一年間 或은半年間)內의 貸借의 綜合바랜스를 말하는것이다 國際收支에있어서는 商品의 輸出入 即貿易收支가 가장 重要한 項目으로 되어있으며 『써ー비스』 去來資本의 貸借와 그外의 贈與및 投資와 外資導入等이 重要한 內容을 이루고있다 一般的으로 國際收支의 逆調를 보이고있는 國家에 있어서는 이를 改善시키려는 施策이 講究되고있다 國際收支의 逆調가 있는 國家에서는 아무리 國民의 經濟生活이 潤澤하고 企業經營이 安定되어있으며 또한 擴大再生產을 爲한 投資를 繼續한다고 하드라도 自主經濟體制라고는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國家에 있어서 國際收支를 改善키 爲한 共通的인 方策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貿易政策 即 輸出振興策을 들지 않을수 없다 國際收支의 中心은 어디까지나 商品의 輸出入이기때문이다 이러한 貿易政策面의 施策以外에 通貨 外換 政策面等의 施策으로 分說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國際收支의 改善 乃至 均衡을 目的으로 하는 貿易政策面의 施策으로서 輸出振興策과 輸入抑制策으로 나누어 보건 輸出振興策의 代表的인것으로서

(一) 輸出補償金制度
(二) 輸出金融에 對한 優遇措置
(三) 輸出링크制의 採用
(四) 輸出信用保險制度

等을 들수가있고 輸入抑制策으로서는

(一) 高率의 關稅賦課
(二) 輸入禁止및 割當制
(三) 輸出許可制의 實施
(四) 輸入資金에 對한 金利의 引上을 하는 方策

이 있다 다음으로 通貨政策面의 施策으로서는 通貨價値의 引下 即 平價切下에 依하여 輸出을 積極的으로 振興시켜 貿易收支改善에 이바지하도록 또한 나아가서는 通貨價値安定에 注力하여 物價의 騰貴을 阻止시켜 對外市勢보다 低下하도록 努力한다 그리고 外換政策面의 施策으로서 貿易管理와 外換管理와는 相互依存的인 關聯性을 맺고있고 또한 一體的인 機構속에 存在하여야 할 性質이기 때문에 貿易收支改善의 뒷받침으로 外換管理를 徹底히 實施하여 資本의 國外流出防止를 하며 또한 輸入抑制를 期하여야 한다 諸般產業과 資源이 未開發狀態에 있는 後進國으로서 더군다나 動亂으로 因한 莫大한 戰災가 아직도 完全히 再建되지 안하였고 經濟復興과 安定이 이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當場 國際收支의 均衡을 期한다는 것은 到底히 不可能한것이다 그러나 自主經濟를 窮極의 目標로 하고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自主經濟造成의 基幹이 될 國際收支의 改善 乃至 均衡은 焦眉의 課題인것이다 自立經濟體制를 確立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輸出을 振興하고 生産을 增加시킴으로써 自給度를 向上시켜 國際收支를 均衡시켜야하고 그러하기爲해서는 또한 인푸레숀을 이르킴이 없이 所要의 一投資를 蓄積된 資本으로서 마련할수 있어야 하는것이다

四二八八年度의 우리나라 國際收支를 도리켜보면 우선 經常去來에 있어서 巨額의 援助가 뒷받침이되여 있으면서도 約一千萬弗이라는 적지않는 赤字를 나타내고 있고 그中 商品去來만을 들어보드라도 輸入은 三二八白萬弗에 達하고 있는데 反하여 輸出은 一八白萬弗로서 約三一〇萬弗이라는 엄청난 逆調를 보이고있으며 그러한 大部分의 赤字가 二三三百萬弗에 該當하는 美國의 經濟援助와 四四白萬弗에 該當하는 國聯軍償還外貨및 國聯軍直接購賣弗外貨로써 補塡하고있는것이다 그中 民間貿易만 보드라도 輸入이 八三百萬弗인데 反하여 輸出은 一八百萬弗에 不過하였기때문에 赤字가 六五白萬弗에 達하고있다 우리나라 輸出貿易이 이렇듯 縮少沈滯되어가고있는것은 市場性이 높은 輸出資源이 稀少하다든가 또는 相對國의 貿易制限과 政治的인 考慮로 말미아마 貿易條件이 不利하다는等의 事實에도 그原因의 一端이 있는것이거니와 더욱 根本的인 原因은 輸出振興에 對한 綜合的인 施策이 缺如되어있고 또한 誠意가 不足한데있다고 할것이다 이와같이 지나치게 不振한데도 不拘하고 輸入이 巨額에 達하였다는 것은 約三十億弗의 戰爭被害를 復舊再建하는데 所要되는 必需物資의 導入이 緊急하였고 또한 美國의 經濟援助가 이러한 輸入需要를 堪當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經濟自立을 目標로 復興事業을 推進시키고있고 또한 政府間 贈與의 形式을 따른 美國의 經濟援助가 기리 保障되어있지 않은 現實아래에서는 우선 自給度를 最大限으로 높여서 輸入을 削減하여가는 길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다 그 方法에는 不要不急의 輸入을 주리는것도 하나의 方策으로서 效率的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輸入品中에서 크나큰比重을 차지하고있는 纖維와 그原料 肥料 石炭 食糧等을 大幅 減少시키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것이며 그前提條件으로서 食糧과 國產綿花의 增產을 奬勵하고 肥料工場의 設備를 擴張하고 增設하는 한편 이미 充分한 施設을 保有하고 있다고 看做되는 纖維業의 經營을 合理化하고 石炭의 增產을 圖謀하여 動力源으로서의 電源을 開發하여야 할것이다 要컨대 國際收支를 大幅 增加시키는 方策 即 改善 乃至 均衡策으로서는 輸出을 振興시키고 輸入削減을 爲한 自給度의 向上에 注力함으로써 外貨需要를 節約하는 對策을 세워가야할것이다 外換의 效率的인 使用과 節約을 期하기爲한 對策으로서는 外換의 綜合的需給計劃을 樹立하여 實施하는 것도 좋을것이다

고전교육의 새방향

이 병 주

그러면 그 실제적인 방법론에 들어가 가령 여기『이충무공』의 시조를 다룬다고하자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앉아
큰 칼 옆에차고 깊은 시름 하는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끊나니
이순신

이 3장에 잠긴 경건한 애국과 숙연한 의태(意態)는 강직한 동서(東西)의 당쟁으로 헤뜨다가 마침내 오국(誤國)하여 끝내는『임진』의 국란을 한몸에 도맡은『이순신』장군의 적개심에 불타 전략을 가다듬는 모습이 각자의 눈앞에 삼삼히 어리도록 하여야하며 관조에의 영역을 정계하되 애국의 본을 분명히 밝히는데까지 이끌고 나아가 앵무새와도 같은 〃외치는애국〃파가 종스런 구밈의 애족의 알미움을 깨닫게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 하나 실천에 옮기는 습관을 기르게 하는데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고전의 현대화요 이것이 바로 고전교육의 소득이다

서푸른 주석이나 일삼아 꽤 까다롭게 다룬다고 착실한 지도가 아니오 어법이나 곰곰이 따진다고 완벽을 기한 지도가 아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이 시조의 근본 정신은 송두리채 삭을지니 어즈버 하나를 진지켜다 백을 빠치는 어리석음이다 고전주의 교육의 폐단이란 실로 여기에 있으니 덮어놓고 고전에로 돌아가게 하는 고전교육은 비단 학습의 권태감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고전 자체를 천시하게 되는 빌미가 되는데 교육의가치 편가로 보아도 크게 반성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재검토의 긴요성이 재삼 논위되는바다

이런 뜻에서『양주동』스승의 고가 편설 이나『이희승』스승의 시조 감상 이나『조윤제』박사의 은근과 끈기를 크게 권한다 고전의지도는 이만한 넓은 지식의 도가니에서 우러나온 자료가 결들어야 그지도도 수월할뿐더러 이해도 바르다 참고대 삼아 애국이니 애족이니 도의심의 양양이니 맥번 뇌까려 보았자 앞에 젖은 심령에겐 하나의 객담으로 밖에 들리지않는다 그러므로 고전에로 돌아가는 과거의 고전교육은 수박 겉 핥기의 귀실을 모면치 못한다 가득이나 점잖은 표현이라 인득(認得)하기 어려운 고전을 군색한 주석을 위한 주석으로 자가의 현학을 고집함은 고전에의 모독인동시에 고전의 현대화를 괴하는 올바른 고전교육의 가장 경계하여야 할적이다

여유 있는 생활에서 유여한 표현으로 엮여진것이고 전심을 모르지 않을진대 멋없이감 또는 여운에 도취케하고 행문(行文)의 묘체를 백독(百讀)으로터득케하고 그로서 자기의 과오를 스스로가 뉘우치게 하는데는 강유(强誘)보다 애송이 더 보람있고 암송이 더 효과적이다 이 점은 진작 퇴계선생의『도산곡』과 율곡선생의『고산곡』이 잘도 종명하고 있으니 그 가요의 송영이 후학(後學)을 육성함에 있어 비여한 바를 따지면 실로 막대한 바가 있음을 짐작한다

이 고전의 송영 암송은 그 이해를 위해 절대적임은 물론 이에 이르르면 고전의 맥이 뛰고 날개가 돋히어 그 현대화 생활화의 궤도가 뚜텄이 밝혀진다 착하고 끝고 너그되 엄할 줄 아는 조상의 문언(文言)을 갑속에 넣고 자랑하는것 이것은 바로 고전을 골동화하는 수작에 지나지 않으니 고전에로 몰아 넣는 고전 주의 교육에서 한걸음 나아가 그를 우리들의 신변에로 이끌어드려 저마다 활훈(活訓)으로 삼을 때 고전은 비로소 읽은 보람이 나고 배운 값이 있고 가르친 명분이 선다

이는 중국의 고전을 제주머니의 친량처럼한히 짐작하던 옛날 우리조상의 일에서 더정확히 알수있다 이태백(李太白)이나 두자미(杜子美)를 이웃집영감보다도 더 잘알던 우리 조상들의 이른바공부가 어떠하였던가 약간이라도 더듬어 보면 족히 알수 있는일이다

멀리는 중토(中土)의 것을 본떴고 가까이는 구미(歐美)의것을 방작(倣作)한 것이 베누리없는 우리의 고전이로되 그러나 그 속에도 전형적인 명맥은 엄연히 존재하여있으니 오는 이 알뜰한 자유의 자취와 파격적인 해학과 벽유로 넘쳐 깨우쳐 준 경구(警句)와 알숭 달숭한 사람을 샛샛치 가리고 발려서 현대의 생리에 맞게 새김질하여 좋이 살리는 한편 나아가 이를 바로 실생활에 반영시켜 보자는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인 동시에 고전 교육의 지향점이다

송강의 훈민가를 다루면서도 송강의 애국애민을 이해케 못했다면 그는 시간낭비요 역량부족이 아니면 상기도 사색(四色)에 치우친 무리로 밖에 따져지지 않는다 한가지로 여요를 읽게 하고서도 고려의 사회상을 짐작케 못했다면 그는 옛말의 주석과 고문법의 실명에 도취하여 정작 노련자는 빠치고만 유명무실한 교육이었음을 웅변으로 실명하는 증좌밖에 않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 붉은 고전을 낡은 고전으로 다루고 마는 고전 교육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음을 스스로이 여길만큼 고전의 생활과 교육은 더전을 잡지 못한점이 없연한 오늘의 국어교육의 현실이다

흥부전은 하나의 흥부전으로만 다루었을따름이지 기막힌 오늘의 현실과 결부 시켜 재검토 하고 거기서 유의(有意)한 새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받는 지도는 아직 드물만큼 아쉰것이 오늘의현상이며 그러므로 오늘에 살려진『흥부전』으로『춘향전』으로다루는것이 예사가 되는 찬다운 고전 교육이 되고『사미인곡』산『오우가』심지어는 산『치악산』에로 하나같이 매진하기를 바라 이 일문을 초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당국에는 그 실천을 위한 강력한 추진을 바라고 눈길을 갖돕는 수고롭대방에 촉하고 갈은 연학도에 그 분려를 장(奬)하는 마음 저마다들 간절하니 진부했던 고전교육은 바야흐로 신기원을 자아내고야 마리라 믿어 안심한다

내 양자 나만 못한줄 나도 잠간알건마는
연기도 바려있고 분때도 아니 미네
이리코 피실가 뜻은 전혀 먹지 않노라
『송강 정철―』

(筆者는本校講師)

(끝)

聞보기

問＝『리얼리즘』의 見地에서본 實存主義文學에 對하여論해주십쇼(史學科二年林)

答＝代表的 實存主義作家『싸르트르』를 例로들면 過去十八世紀末부터 十九世紀의中葉까지 全歐州文壇을 風靡하던『로멘티시즘』의 空想的이며 神秘的인 傾向으로 因하여 人間이 그의 生活環境의 實態로부터 벗어나갈은 反動하여 烽起된『리얼리즘』文學運動이 一貫된 散文精神의 主流를 形成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나『로멘티시즘』이 形成한『뿌르조아』的 作家精神에 對한 反動體인『리얼리즘』運動의 本質的인 性格은 人間生活의 實態를 把握함으로서 客體에 內在하는 秩序나 法則을 捕捉하려고 試圖한것에는 틀림없으나 어데까지나 作家精神인 客觀的 位置로부터 自身의 介入을 拒否하는 對象(人間生活의 實態)의 反射作用으로서만 眞을 探求하려는 消極的인 文字的 方法으로서『로멘티시즘』과 같은 또하나의 作家精神의『부르조아』的 階級을 形成하게되었던것이다 이러한『리얼리즘』文學에서 主觀的獨斷이나 獨善的인 論理의 設定을 避할수 없을것이니 이 槪念的이며 貴族的인 方法을 배척하기爲하여 作家도 深刻한 社會秩序의 破壞와 動搖의 客體로서만 存在할수는 없기때문에『싸르트르』는 단하나의 確實한 存在는 唯一無二한『自我』에 있다는 結論밑에서 個人을 拘束하기爲한 일체의 社會的條件에 抵抗하는 行動性文學으로 實存主義의 旗幟을들고 旣存條件에대하여 宣戰布告를하였던것이다

(編輯調査室)

海外經濟뉴ー스

佛蘭西植民地印度에移讓

前佛蘭西植民地『퐁디세리』『카리칼』『마에』및『야나옹』을 印度에 正式으로 移讓한다는條約이『네ー루』首相과 駐印佛蘭西大使間에 五月二十八日『뉴ー데리』에서 調印되었다

同條約은 植民地의 代表者들이 其他施策을 決定할때까지 現行政組織을 그대로 維持할것과 行政語로서 佛蘭西語를 前과같이 使用할것을 認定하였다 그리고 同植民地에서 誕生한 住民은 同住民이 生後 六個月內로 佛蘭西國籍을 選擇하지 않을時에는 自動的으로 印度市民權을 獲得하게 된다

同條約에 依하여 印度政府는 同植民地에 對한 佛國의 國庫負出의 金額을 佛蘭西政府에게 即時로 償還하게 되었으며 佛蘭西市民과 同企業은 資本및 所有財產을 向後十年間에 있어서는 自由로히 回收運搬할수있게 된것이다

宗敎 및 文化機關의 所有權과 運營은 何等의 影響을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佛蘭西政府는『퐁디세리』佛蘭西大學을 繼續하여 所有運營할것이며 또 佛蘭西敎育을 實施하고 있는 私立學校에도 援助를 繼續할것이라 고한다 記錄文書의 保管에 關하여서는 佛蘭西政府는 歷史에 關한 同記錄物만을 保管하게되겠고 行政에 關係되는 記錄物만을 印度政府에 移管할것이라고 한다

GATT成果

GATT가 主導하는 世界關稅會議는 其間瑞西『제네바』에서 進行되어왔는데 五月十五日 多大한 成果를 거두고 閉幕하게되었다 即 今年一月十八日以來 二十五個國이 關稅讓許交涉에 參加하여 約六〇個의 各二個國相互間의 關稅引下雙務協定이 締結되게되었으며 單只 品目表의 決定과 調印의 節次만이 남게된것이다 그리고 이協定에依하여 約二〇億弗에 該當하는 貿易品에 對한 關稅가 引下되게 된것이다

今般의 新關稅表는『關稅貿易一般協定』의 議定書에 編入될것이며 世界貿易量의 四分之三以上이 GATT의 庇護下에 設定된 關稅讓許制度下에서 進行될것이다 今般의 關稅會議에 美國도 參加하여 全國의 關稅도 引下하게되었는데 이와같은 協定締結은 互惠通商協定法에依한 大統領權限에依하여 實行된것이다

今般의 關稅讓許交涉은 世界各國이 傳統的으로 繁榮을 이루고있는 觀點에서 볼때 매우 適期에 實行된것이며 其會議의 成果는 豫想外의 收穫을 거우었고 大多數當事國代表들도 同成果에 滿足하고 있다

第二次世界大戰以來 關稅讓許會議가 三次에걸처 開催되었었으나 別다른 成果를 얻지못하였는데 今般의 四次會議에 있어서는 諸般의 世界經濟動向으로 因하여 多大한 成果를 걷우게된것이다

其要因의 하나로는 美國通商協力法에 依하여 一九五六年六月三十日以後 三個年間에 걸쳐 每年五%씩 關稅를 引下할수있는 權限이 美國行政府에 賦與되었기때문이다 即 美國과의 關稅引下交涉이 可能하게된데에 刺戟되었기 때문이 것이다

同關稅交涉範圍를 擴大케한 둘째의 原因은 西獨과 伊太利兩國이 機會를利用하여 自由輸入品에 對한 關稅를 最大限二倍로 引下함으로써 自國輸出品에 對한 相對國의 關稅讓許를 最大限으로 獲得하기爲하여 全力을 다하였다는 것이다

셋째의 理由로는 歐羅巴大陸諸國이 英國의 高關稅를 非難하고 있는 不平을 阻止하기爲하여 英國은 政治的으로 可能程度까지에는 關稅引下에 最善의 誠意를 表示하였다는 것이다

今般에 새로 採擇될 關稅率은 各國間의 協定이 發効할때까지 嚴秘에 붙이게 되는데 이는 關稅變動을 豫期하는 投機的인 去來를 防止하기爲한것이다

應用經濟學으로서의 計量經濟學

編輯室 提供

現代 經濟에있어서의 近代統計論의 應用―即 計量經濟學의目的은 經濟理論을 定量化 하고 이것을 統計的으로檢證 하는것이다 近代經濟學 의 發達過程을보면 最初 그理論이 文學的으 로說明되어 後에는 그 것은 數學的인用語를使 用하여說明하게되었다이 事實은 近代經濟學全體 全體로서도 그러하고 그 個個의 理論에 있어서 는『케인즈論(케인즈)』 로서 그것은最初『케인 즈』John Maynard Keynes에依하여 非數學的 인形式으로記述되고 乃 終에 많은數理經濟學者 에依하여 數學方程式을 使用하여 定式化되었다 그러나 所謂 經濟數學 또는 數理經濟學(數理 經濟學派)에서는 또한 經濟學의 目的을 充分 히다하지못하고있다 그 것은 經濟學硏究의 究 極의目的인 豫測을可能 케하기爲해서는 理論의 定量化를 必要로하는까 닭이다

例컨대 數理經濟學에 서는 需要極數의 理論 을 定式化 할수가 있 는것이다 그러나 그것 은 鐵道運賃을 引下시 킨 境遇 運賃收入이增 加할것인가 減少할것인 가 判斷할수없는것이다 勿論 이事實은 鐵道運 輸에 對한 需要의 彈 力性에 依하여 定하여 지는것으로서 그것이 |보다 크다면 運賃의引 下에依하여 運賃收入은 增加하며 彈力性이 |보 다 작으면 減少하는것 이다 그러나 이彈力性 이 |보다 큰가 작은 가는 統計를 使用하여 測定하지않고서는 決定 할수없는것이다 即 定量 的인 豫測에 經濟理論 을 使用한다고하면 統 計資料를 使用하여 理 論을 定量化하여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定量 的 分析은 理論을定量 化할뿐만아니라 理論 그 自體를 實證하는것 이다 이理論의 定量化 乃至理論의 實證에는近 代統計學의 推理理論에 依한 方法의 利用이必 要한것이다

近代統計學의 方法은 自然科學 主로 生物學 의 硏究分野에있어서 發 達한것으로 뛰셔―Ronald Aylmer Fisher와 그 系統의學者에依하여推理 統計의方法이 이方面에 서顯著한業績을 올리고

方法에關하여 커다란相 違가있는것이다 그것은 生物學이 實驗을 基礎 로하는 學問인데對하여 經濟學이나 一般의社會 科學에서는 大槪實驗이 不可能하다는것이다 따 라서 生物學에서 効果 를 올린 近代的統計方 法이 無條件으로 經濟 學에應用되어 有效라고 는 할수없는것이다 이 事實은 일찍부터 많은

想에依하여 經濟學이取 扱하는것과같은 實驗에 依하지않는『데ー타』를 取扱하는 境遇의 推測 統計의 方法에 關하여 最近 十數年間에 顯著 한 發展을 보았다 이 들의 方法은 그根本原 理에있어서 生物學에서 使用되는 推測統計의方 法과 全然 同一한 것 이다

經濟學이 理論의 定 式化에 使用하는 數學 方程式을 統計的으로말 하면 그것은 回歸方程 式이다 이러한境遇 理 論이 所與되므로 方程 式은 原因變數(獨立變 數)X와 結果變數(從 屬變數)Y를 區別하여 다음과 같은 形式으로 表示된다 線型을 假定 하여 $Y=\gamma_0+\gamma_1X_1+\gamma_2X_2+\cdots+\gamma_xX_x$ 經濟構 造가 이와같이 單一한 方程式으로서 表示할수 있는 境遇에는 簡單할것 이다

그러나 이方程式에包 含되어있는 經濟變數의 各個는 이中에 包含되 어있는 他變數와 이式 으로서 表示될수있는關 係를 가지고있을뿐만이 아니고 더나아가서 이 式에 包含되지않는 他 變數까지도 包含하여 많 은 變數와의 間에 여 러가지 關係를 가지고 있음은 明確한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關 係網中에서 오직 한가 지만을 추려서 考察함 은 반드시 바른 考察 이라고 할수는없다 經 濟構造와 그中의 諸關 係는 말하자면 經濟變 數個의 한個의 聯立方 程式으로서 取扱하여야 한다

$$Y=\gamma_0+\gamma_1X_1+\gamma_2X_2+$$
$$Y=B_0+B_1X_1+B_2X_2+$$

이들 方程式은 經濟 理論上 各各 需要函數 生産함數等을 意味하여 그의『파라메ー타』는需 要의 強力性 限界生産 力 等等을 意味한다 問題는 이와같은 經 濟 構造를 定하는『파 라메ー타』의 値를統 計的으로 數値化 하는 것 이다 그리고 그를 爲하여 使用되는 主된 方法은 最少二乘法과 最大尤度法인것이다

(詩) 仙人掌

李京淳

(줄기마다 받쳐 오르는
피가피여꽃을 피워라)

오래 빌어온이름들이나 있듯이
어느 한갓이라도
외우고 싶헛다

수지분 날위에 귀를 다듬는다
작구 꺼저가는 몇낱세 너마를
센다는 뜻인가

또 하나 봄볏을 가려 닥아스는
이리도 힌 소리

바추하여 지워도
치겨올린 다짐에 다시 돌아온 어느
발자욱이

항시 아련하여 혹바친 잎이
그예 꿈에 젖고 말리듯이

불어가 바람에 탕감늘 하다
바위。
한쪽각 이야기를 거느리고싶헛다

내마음마다 천신이 잠겨가는
피가 안기고
푸른향 솟구치는 백년이며오른다

(國文科 一)

最小二乘法은 推定의 誤差가 最小로 되도록『파라메ー타ー』의 價値를 決定하는 方法이며 最大尤度法은 所與의 觀値가 最大의 尤度likelihood(實現의 確率密度)를 가지고있는것으로서『파라메ー타ー』의 價値를 決定하는 方法이다 이두개의 方法은 때때로 同一한 推定値를 주고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推測統計理論은 母集團의 性質을 그의 一部標本에서 推定하는 方法인것이다 經濟現象에있어서 우리들이 觀察하는 諸關係도 그리고 未知의 無限母集團에있어서 成立하는 關係의 하나의 標本이라고 생각할수가있다 따라서 前述의 回歸方程式 또는聯立方程式의『파라메ー타ー』를 賦與된 觀察統計資料에 基據하여 最小二乘法 或은 最大尤度法에依하여 決定하였다하드라도 그價値는母集團『파라메ー타ー』의 推定値로서 所謂 標本誤差를 隨伴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推測統計에서 母集團『파라메ー타ー』를 推定하는 方法을 點推定의 方法과 區間推定의 方法과로 나눌수가 있다 點推定은 母集團『파라메ー타ー』를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오직 하나의 値로서 생각하고 推定하는 方法인것이며 어떠한 推定値가 最良인가에 對해서는 그 推定値가 가지고 있는 誤差의 性質에 依하여 定하여진다

一般的으로 뛰쉬ー의 案出한 最大尤度法은最良의 推定値를 주는方法으로 생각하지만 聯立方程式의『파라메ー타ー』를 推定하는境遇 그計算이 一般的으로 彪大한 量에 達한다 點推定値가 아무리 良好한 推定値라하드라도 크든 적든 誤差를 隨伴하는 故로 이推定値에 依據하여 行動하면 不測의 잘못을 犯할 憂慮가있는것이다 그래서 推定値의 크기를 安全率의 큰 어떤 區間으로서 表示하는 것이 區間推定의 方法이다 이方法으로서는 母集團『파라메ー타ー』의 推定 値를 例컨대『九五%의 信賴係數로써『一와『二과의 間에 存在한다』라고 하는 形式으로 表示한다 그意味는 같은 母集團에서 몇번이든지 標本을 끄집어내어 이와같은 區間推定의計算을 行한다고하면 그中 九五%까지는 確實히 母集團『파라메ー타ー』를 包含하는 區間推價値가 計算되며 나머지의 五%만이 區間內에 母集團『파라메ー타ー』를包含하는데 失敗한다는것이다 例를들면 旅客輸送에 對한 需要의 價格彈力性을 九五%의信賴係數로서 一○、二乃至 一○、五라고推定되었다고 한다 이러한境遇 우리들은 旅客運賃을 十%引함으로써 他條件이 變化가 없는限 乘客數가 最小二% 最大 五%의 減少를 보인다고 생각하여 九五% 安全하다 即 이와같은 方法으로서 計算한 豫測에 基據하여行動한다면 一〇〇回中九五回까지는 失敗할憂慮가없다고생각할수가있다

推測統計의 다른 한가지問題로서 經濟學의 硏究에 應用되는것은假說의 檢定이다 假說檢定의 理論에서 오늘날 가장널리 使用되고 있는것은『네이만=피어슨』Neyman=Pearson의理論으로서 이方法에서는 假說檢定에 있어서의二種의 잘못은 危險을考慮한다 第一種의 잘못은假說이 正當한대도不拘하고 잘못이라고 내리고마는 境遇이며 第二種의 잘못은 假說이 잘못되어있는데 그것을 보지않고 採用하는 境遇이다 假說檢定의 方法은 이二種의 잘못을 犯할 危險性이 가장 적은方法이 좋은것이다 그러나『네이만=피어슨』의 方法으로서는 第一種의 잘못을犯할 確率(이것을 有意性水準 Level of Significance라고한다)을 一定의 크기以內(例컨대五%)에 잡아두고그의範圍內에서 第二種의 잘못의 危險을最少로하는 方法을 求한다이와 같은方法에依하여假說의 檢定을行하는境遇우리들은 다음과같은것을 생각할수가있다 有意性水準을 五%로하여 어떤 假說의 採否를 決定한다고하면 이와같은 檢定方法을 여러번 試驗해볼때에 百回하는中에 五回는 正當한 假說을 잘못한것으로 判斷하여 내버리게 된다 同時에 이檢定方法이萬一 第二種의 잘못을犯할 危險性率이 가장적은것이라고하면 같은有意性水準을 갖는 어떠한 檢定方法을 使用했을때보다도 잘못된 假說을 正當한것을 採擇하는 危險은 적다

統計에依하여 檢定된 假說은 主로 母集團의 性質을 定하는『파라메ー타ー』(例컨데 平均値 回歸係數等)에 關한 것이지만 假說檢定의特別한 境遇에 더군다나 經濟學의 硏究에서 比較的 重要한 意味를갖는것은 標本에서 計算된 母集團『파라메ー타ー』推定値의 有意性檢定이다 이러한境遇 當該『파라메ー타ー』가 母集團에서는 ○이라고假定 하고 標本에 對해서 檢出된『파라메ー타ー』의 推定値는 우然이라고 생각하는것이다 例를 들면 主食인 쌀의 價格에對한 需要의彈力性은 ○이다 即 쌀의 需要는 價格의變動에 無關係하다고 假定한다 그런데 實測의 結果 그彈力性係數로서 例컨대 一○·二라는數値가나왔다고 한다問題는 假說이 成立하느냐의 與否에있는것이다이 檢定은『파라메ー타ー』推定値의 誤差(母集團파라메ー타 ○과의差) 一○·二가 標準誤差의 몇倍가되는가를 計算하고 偶然의 誤差가 그러한 크기보다도 크다는 確率을 求하여그것이 所定의 有意性水準(例컨대 五%)보다도 작다면 假說○即쌀의 需要가 價格의變動에 無關係하다는 假說을 내버린다 實際의境遇 有意性檢定의 方法은 特히 이와같은 假說 [illegible] 觀察에 依하여 얻은『파라메ー타ー』推定値가 意義가 있는가없는가 다시말하면 母集團에있어서 그것이○이아닌 어떤크기를가지고있으며 따라서『파라메ー타ー』推定値의表示하는關係가 意義가있다는것을 證明하기爲하여使用된다

一般的으로 假說檢定의 方法은 經濟學에있어 應用할時에는 單獨으로가아니고『파라메ー타ー』値의 推定에隨伴하여 並行하여 使用된다 例를들면 所與의理論模型에對하여 그의『파라메ー타ー』를 推定한다 推定値가 理論上豫想되고있었던『파라메ー타ー』와 假令 符號가 反對이었다고한다 이러한境遇 萬一 推定値가 意義가있으며 따라서假說을 버려야한다면 새로운 形의 方程式에理論模型을 求하여 다시推定과 檢定을 進行하여가는것이된다『파라메ー타ー』의 推定과 假說의檢定은 大部分 計算의 手續을 한가지로 하는것이 普通이다

經濟理論을 計量化할때의『데ー타』로 되는 統計資料는 現實의 經濟過程의 觀察에 依하여 求得되는 것이므로 應用 經濟學(計量經濟學을 包含하여)은 歷史的 過程을 硏究한다고 할수 있다 이歷史的過程이 將來다른條件下에서 어떻게 展開할것인가를 正確히 豫測하는것은 不可能하지만 우리들은 이未知의 領域을 되도록 바르게 適中할수있는 內容을 가지고 豫測하려고 努力한다 即 經濟學者는 歷史的으로 일어난 經濟過程의 諸關係를 可能한限 詳細하게 分析하여 이를 推定하여 未知의將來에 延長하려고 試圖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豫測은 單純한 形式的 機械的인 延長이 아니고 理論에 依據한 條件을 賦與한 然後의 延長으로서 또한 그 結果는 妥當 [illegible] 確率을 가지고 [illegible]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豫測은 極히 有用한것이라고 할수있다 時히 이와같은 分析과 豫測이 重要한 意味를 갖는것은 經濟政策에 關한것으로서 經濟의 過程에 어떤 種類의 政策的 變更을 導入할때 即 經濟變數에 人爲的인 變化를 賦與했을때 그것이 定量的으로 어떠한 結果를 發生할것인가의 豫測的判斷은 計量經濟學的인 方法에 依하여 定量化된 經濟理論의 定立에 依해서만 可能한것이다

[illegible]

建設語

文明人들일수록 그들의 充分한 休息이 그들의 精神勞動에많은 効果를 가저온다고 共鳴할것입니다。

더욱이 더위와 學園과 무엇보다도 切實히 必要로하는것이 休憩室이라는것입니다。

所謂 諸公園이라고 찾어 가본댓자 뺀취하나 놓여있지않은것이 韓國的悲哀인것은 말씀드릴餘地가없다고하겠지만 이 沒理解된部門을 열고 나가야될 學園에까지 이 [illegible]

學園과 休憩室

뺀취만듭시다

[illegible] 事實 公衆의 利器로써 勇敢히 設置된것을 손꼽자면 臨然할수 밖에없는것 우리社會가 아닙니까

[illegible] 學問硏究뿐만아니라 知識의 代辯役인 情緒敎育을 爲한 施設에 多角面의 創意 創設能力이 遺憾없이 發揮되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무슨豫算案입지요」「무슨施設經費입네」하고 氣염은 比하는것이 政府側 面目이요 大槪學園에서의 論議인듯 합니다 嚴密한 計劃尺度로써 된다면 적은 施設부터 피라미드型으로 쌓어올라가는것이 옳바른境遇가 아닐까요

[illegible] 無關心하다고 한니까 問題는 原始性의 反주에 끝이고 말것입니다。多少나마 模範的인 役割을 擔當할수있다 되는것입니다 于先 休憩室은 徐徐히 만드신다 하더라도 뺀취의 設置는 時急한것이라고 生覺합니다 (金)

作家의機能

조이스·케리

金用哲 抄譯

당신은 당신의 모자를 쓴채 그의 채속을 거느린다고 (트로르프)에 關해서 얘기했었던 것이다。

그 觀念은 그의世界가(디켄즈)의 그것보다는 훨신 眞實하다는 意味이다。

그도 그렇게 自身이 생각하고있었고 그렇게 많은잘못에인 도된 無知한 자들은 作家의일이人生을 複寫하는 것이라는것을 포함하고있다 왜냐하면 人生을 복사한다는것은 無意味를 産出하기때문이다。(트로르프)는 그가한창 찾고있던 人生속에서 意味없는仔細한일의 무데기를 發見했고 無用의 잔인과 어리석은 盲目的인 運命을 그리고 때로는 엉뚱망靑을 行하는 어리석음과 無目한 惡을 行하는 허울좋은 聖人들을 發見했던것이다

그가 한것은 모든作家가 한것이며 率直히 골파리대문서 자는現代作家를 조차하고 있는 일이다

그는 一種의經驗을주기위하여 藝術作品을찬조했다

그는 말했다

그것을 제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意味를 感情에다 다드는 것이 作家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꼭가저야하는 이 意味는 觀點으로 이루워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風景처럼 經驗이 어떤 秩序속오다가 調合해 질수있는 觀點으로부터 온다

책이『모랄』을 지녀야한다고 말하기엔 아마도 어려울것이다 그리고 우리는『이것은 外觀의 혼돈밑에 있는 事物의 形態이다』

그것들은 참으로 사람을 行動케하는 힘이다 그의 모든 얘기는 어쨌든 복장 하견간에 테마를 설명하며 展開시키게끔 되어있다 그의 本質的인 課業은 一『디켄즈』의 그것과같다

그는 다만 다른 方法을 쓰고있을 따름이다 人生의 意味를 心想에다 만드는 哲學者의 일처럼 合理的인 統一로서 그것을 意味다고 부른다

그렇다면『트리스트람·슈안디』는 무엇을意味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읽는다는것은『스트라핀스키의『페도라슈카』를 첫듣는 거처럼한事件 이다 그리고 그것은 單純한 經驗처럼 사람들이『그것은나에게 Dot를 意味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會合처럼 어떤 記憶이다

우리는 말의影響을定義할수가없다 그러나 우리는 定義이며 끝이라는것을 안다

事實『모랄』을 전달하는 책에對한 反對는 藝術의 形式에對한것이 아니라 藝術을 나쁘게 하는데 있는것이다

『조라』의『나나』에서 道德化하기 위해서 냉혹한 方法으로 그의 모랄을 짐으로 쫓기위해서 결점을 發見하는 批評家는 냉혹한 道德을 防備해야만한다

만약에 조것의 干城이 銅으로 된것이였다면 그는 銅을 爲하야 構成해야할 온갖 權利를 가졌던것이다

그러나 그가 自己의 觀衆을 긴장속으로 氣絶시킨後에 그들에게 平凡을 詐欺를 주었을것이다

『조라』는 時間의 侍者가 아니다

그는 자기의 生命을 決코『드레이푸스』事件때 正義를 위해 싸웠다 그러나 그는 깊은 作家가 아니다

그는 人物에 있어선 世界를 豊富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表面을 할고 있었다 그는 道德性과 歷史의 큰 포기에 어두웠다

그는 옛印象에나 치밀을 붙엣지만 그는새로운直觀을 주시못했다

그러한 意味에서 偉大한 作家건 詩人 이건 歷史家건 組織된經驗의 世界에 하나의 固定한 行動的印象으로·가장 調和되어진 사람이다

『도로스도이ー의 戰爭과平和는 온갖人間의行動과 非人間的인 運命의王國의 感情과 作家에 意味를 形成한 빈틈없는 試圖이다

그는 계속하지못했다 왜냐하면 技術的으로나 事實的으로 누구도 계속치 못한다는 理由가 있다 그러나 戰爭과 平和는 아직도 藝術의 가장 偉大한 完成이다

사람은 藝術로서 살고 偉大한 藝術속에선 偉大하게 째째하지 째째한 예술속엔 『조라』와 같은 作家들은 平凡한것에 치밀을 주며 世界의 表面的인 理念을 有用한作品을 만드는것이다

그 理由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린사람이 制限된 判斷에 그 무엇을 못했을때 던다는것이다

二十五歲 가량되면 그들은 그들의 敎育이끝난것을 생각한다

『롯소』와『톨스토이』는 歷史에 直接 革命的인 影響을 끼쳤다

그러나 그러한 意味에서 그들이 重大한作家라고 提案치 않는다

모든 藝術은 歷史를 만드는데 그 大部分이 間接的으로 호이한 方法으로 만드는것이다

『젠·오스튼』은偉大한 藝術家이다

그네는 그네의 時代의 그 누구보다 훨씬 읽힌다 마음에 끼친그네의 彰響은 許多하여 한 攻擊으로 매마른想像은 풀는것이 아니다 [illegible]家에서 피어오는것이아니다 그네의 人生에 對한 理想의 均整과 理解로서 쏫아나는것이다 그럴수록 웃쏘니 도스토이 보다는 훨신始終一貫한 그네는 亂裝 않는다 (英四)

週間教養講座 (第七回)

大覺國師義天

元義居士

高麗太祖 王建은 오로지『我國家大業 必資諸佛護衛之力』이라 믿고서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나 積極的인佛敎保護政策을 取하였는데 이리하여 바야흐로 貴族政治가 始作되는第十一代 文宗時代 前後부터는 佛敎는 貴族佛敎化되어 貴族乃至 王室에서 爲僧되는者 매우 많았던 것이니 그中 大覺國師義天도 文宗의 第四王子로서 同王十九年 十一歲의 어린 몸으로 靈通寺에서 景德國師에 依하여 祝髮하였고 이어서 十三歲時에는 王으로부터 俗世僧統의 稱號를 받었데 以後 肅宗六年四七歲로서 歸寂할때까 그 一生을 佛道에獻身하였다

正統的인 敎理信仰과 한편으로는 護國의 裨補的인 地理的인 俗信仰과의 兩信仰의 方向을 內包하면서 出發된 高麗佛敎는 初期엔大略新羅佛敎의 延長인듯하였으나 드디어第十三代 宣宗時를前後한 이義天의活動과다음 第十七代仁宗時의妙淸의 西京遷都運動으로서 二大特色을나타냈다 즉 後者가地理的俗信仰이 佛敎와融合된 高麗佛敎의 最高峰을이루었던것이라면 前者는 正統的인 敎理信仰의最高峰을 이루었던것이어서 이러한意味에서 大覺國師는 韓國佛敎史에서높이 그功績을 사야할것이다

大覺國師義天은 宣宗元年에 佛書를 搜訪하고또한 直接大陸의 佛敎를 研究하라고 入宋코저『請入宋求法表』를 兄인王께 再次 올렸으나 當時 宋遼關係의複雜한 國際情勢를 두려워한 朝臣들의 諫言으로 聽許를 얻지못하였는데 求法에 불탄義天은期於코微服하여弟子壽介와함께同王三年四月宋舶에托하여逃出入宋하였다宋帝는義天을至極히寵遇하였으며 그間비록僅은 十四個月間 이라마 義天은 華嚴宗의 淨源·天台宗의 從諫 唯識의 慧림·律宗의 元照等 高僧을 비롯한 五十餘人과 直接 相面하면서 서로 배우고 意見을 交換하며 討論하며 自己의 知見을 넓히는한편 佛書를 可能한限 모아갖이고 宣宗四年六月엔 高麗使와함께 千餘卷을 갖이고 歸國하였다 國境에이르자 義天은 앞서 逃出한 罪를 느끼어 王께『至本國境上乞罪表』를 올렸는데 그러나 入宋은 高麗佛敎乃至 文化를 더욱 빛내기爲하여 限死코 決行하였던것이였다고 말하였다 王은 母仁睿太后를奉하고 奉恩寺에出御하자 義天을 慰勞하고 前例없든 迎하의道義를 베풀으시었다

歸國後 義天은 遼로부터 또 佛書를 모아가지고 이四千餘卷에達하는 佛書를 혼자 獨占할것이아니라 널리펼及식히어 우리文化를빛내코저 一々히 分類하여『新編諸宗敎藏總錄』이란 目錄을 作成한後 興王寺에 敎藏都監을 두고 하나 하나 뽑아 大藏經을조造하였다。宣宗七年에 目錄이完成되자 곧 大藏經조造에着手하였는바 勘校에는義天自身 그리고 華嚴經興王寺大師則유·詳유 伽論宗敎寺大師玄湛·그 華嚴經佛日寺慈應大師德綱等이 擔當하였고 寫經院書者柳侯樹·秘書省楷書同正附宮禮等은 筆者의任務를 擔當하였다 이리하여 崔致遠의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知僧傳·澄觀의 大方廣佛華嚴隨疏演義鈔·玄範의 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權서譯의 金剛般若經·法寶의 大般열반經等等 續續 조造되어 갔는데 愛惜하게도 義天이 肅宗六年에 歸寂함으로써 完成을보지못하게되었음은 一大遺憾之事라 아니할수없다。

義天의 總計劃下에 推進된 이大藏經은 續藏經이라하는데 第二十三代高宗時의 大藏經 즉 高麗經과 다른點은 그 刊記가 干支가아니고遼의年號 즉大安과 壽昌이 보이고있다는것이다 이續藏經은 高宗時까지 大邱符仁寺에奉安되어온 것이蒙古兵亂에因하여燒失되고말았다이밖에義天은 唯識單科 圓宗文類 釋苑詞林의 三大編述을 남기였고 또한 肅宗을 補弼하여 앞서 在宋時에얻은 經濟知見을 갖이고 鑄錢事業을 推進식히기도하였는데 이鑄錢事業은 一般經濟는勿論이려니와 寺院經濟에 적지않은 影響을주었다

그러나 義天의 韓國佛敎史 乃至 高麗佛敎史에있어서의 地位는以上과같은 業績에서 차지된것이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自己自身의 位置를 正確하게把握하여 高麗佛敎를 樹立하였다는것에 있는것이다 즉그는『祭芬皇寺曉聖文』이란글을 지어서 元曉를 景慕하였고 또한 義湘의 跡을興작는等 히新羅華嚴에의復古精神을 갖었던것이니 말하자면 義天에와서우리韓國의佛敎가 自己를 把握하고 이른바 Renaissance 의過程을 밟었던것이다 그러나 盲目的인 復歸는 아니었고 諸宗을 融合하고서 宗密의定慧雙修를標榜하는 華嚴宗과 敎觀二門을主張하는 天台宗에立脚하여 自己의 獨特한 佛敎觀을 내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偏敎忽觀하는 敎宗도 排斥하고 執觀廢敎하는 禪宗도 排斥하는 華天兩一乘의 地에 선 義天의 天台宗이있든것이요 이로말미아마 海東의 天台宗이 獨立된 一宗으로道脈을 廢하게 되었다그가 住持로 있었던 國淸寺는 母後의 뜻을받어 創立된 天台宗의大刹이였다 義天의 偉大性은 이와같이 新羅佛敎를 Aufheben 식히는 同時에 新編諸宗敎藏總錄에採錄된 佛書名으로 알수있는바와같이 高麗的인 處地에서 在來의 佛敎를 整理하였던것이다 要컨대 佛敎文化의 高低의 尺度가될수있는 大藏經刊行을 推進한우리의 大覺國師義天은新羅佛敎를 止揚식히여高麗佛敎를 樹立하여 韓國佛敎를 一旦 整理할 契機로준 王族出身의大德이었다

끝으로 그의 在世時의 往復書簡과 手記等이『大覺國師文集』『大覺國師外集』에 收錄되야 大覺國師硏究에 貴重한 史料의하나로 되어있다는것을 附記하여 둔다

【創作】 五月

國文科一年 민영희

(完)

『요거 얼마죠?』

아주 얌전을빼구 기세를 올린답시고 눈깔을 새초롬이 뜨고 고갤랑 갸웃이 정말 얄밉게 올려다보면서 어린애같이 짧달막한 손고락이 내우산을 가르켰겠다

『사백오십원 받습니다』

했더니

『삼백환해요』

하고선 덥석 한개를 집는게 아니야 에그 [illegible] 내 등록빈 [illegible] 수가 있나

『관둡쇼』

대번에 했지 그랬더니 [illegible] 그래도 난 못준다 했거든

『아아니 이양반이 오집환두 못깎겠단 말유?』

『글쎄요 집환두 못깎어드립니다 값은 꼭 알맞게 불렀으니까요』

멀크덩 하고 우산을 내려놓드니만 얄이올라서 그게 고만 해적해적 가버리드란 말이다 그래두 그게간지 열마 안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저두 남의 처마밑에서 비를피한다구 발을 동동굴렀을께 아니냐 제까짓게 冊房 들어갈 돈이나 있었나 주제넘게 곳날은시더라

고다음이 웬 아주머니하구 동행이던 중절모 쎄구 고다음이 요아래 책집에서 [illegible] 그다음엔 주자루가 거이 꼭같이 팔렸는데 동동이 신사하구 또 히나는 아마 월급쟁이가 다 무슨 바쁜볼일이나 있었던가보지…하ー 그럼 부자루는 아까 고것하고 그놈이구나 오정이 다됐는데 책보를 든 기집애가 하나갖어갔겠다 얼굴은 밉지않더라만 아무리 일르더라도 벌써 하학하는 학교ㄴ 없을텐데ー 저기집에가 아무래도 무슨 똥만지짓을 하는게지ー 그도 그럴것이 곧이어서 고놈뱅이 고등학교놈이 모자를 빠딱 재켜쓴채 빤들빤들한 열굴을 해가지곤 곧장그 뒤를 우산을들구 딸아부첬거든!

비가 그래도 패는줄기차게 쏟아졌는데두모두가 비가휘뿌리기 시작하니까 신문지를 머리에쓰고 달아나는 양복쟁이랑 손을 홰홰뒤로저으면서 뒤뚱거리다가 다방으로 쑥 들어가는 아주머니랑 길을 건너 뛰어서 마악 나려는 전차엘 냉큼 [illegible]라버리는 군인이랑 그중에는 어느틈에 준비해가지고온 박쥐우산을 확악 펼치는 중년신사랑 꾀이나 까쟁이들이다。 하기야 지금 우산이 안팔리고 등록금이 않될대루 웬이건 뭐그령게 안타까울것도없다 뭐가 그리 살뜰하나까짓 야간학교ー 시간이 되구 외글와글 허구 유행갈 부르구 담배연기가 자욱하구… 교수란게 들어오면 겨우 교실바닥에다 버린 담배꽁주위에 가래침을 카악 배타대군 구두발로 새이씩 문대고는 만전을 피는 더벅머리자식들 유리창만큼한 창구멍안에 오목하니앉아 제돈 떼먹고 안주기나 했듯이 패는 차거움다싶은 눈총이 사뭇할따위는 여자뙤계원의 태없는 안경ㄴ 날마다 노오랗게 부어있는꼴이라니… 알지도 못하는게 [illegible] 제처덥기면서 되지못하게 거들을때 빼는 R교수의 아니꼬운 설눈이랑… 그래ー 자랑은 모를직이『참 되어야겠지만 언제나『찬』그것만으론 살수없을께니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처세술이란다ー고 중학때 어느선생이 주역장에 그적어려준 글이『원』이겐 무슨 위대한 교훈이나 받은것처럼 심각한 철학이나 배운것처럼 자주 입에 중얼거렸던게다

뭐 임만 그렇지만이게 나 갖고나온것은 다만 [illegible] 했던게 몇자루▲것 가지군 또 어머니 주름살이 하나 더늘겠구나 에라 난 모르겠다 오늘아침두 늦잠을자보자는걸 어머니가 나가보라구해서 나온게 아니냐 안나와두 각상점에 눈아준것만해두잘팔리면 될텐데 하필 남은것까지 들고나와 팔아보다니…그래 흠은 이마음이 원에겐 고행게 답답하구 고지식하텐다 먼저번에 수금을 마쳤을때 등록빌 달래니까

『그르쎄(글쎄) 야아야 돈이 그리 숩나 우산 [illegible]』

[illegible]

『우산한개 팔고 집천도남고 오천도남고 [illegible]』

고만 큭 웃어버린다 큰일이나 한듯이… 내다 안다는 듯이……

먼지없는 거리는 여전히 시그립다 와글한다 하늘은 또 우중충하고 때때로 음흉이 스쳐부는것을보면 쉬비가 한줄기 할것도 같다

1956·5·

時感

좋은 態勢

歷史는 恒常 學生諸君의 戰國態勢를 念願하고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보담 더많이 닥아올 來日을 君들에게 힘입음이 크기때문이다

『戰國態勢』로서 누가 提示해도 어떤 [illegible] 이른 새벽 둔동이 트기에도 아직 時間이 이른 미아리 고개길·敦岩洞도 잠자고 貞陵도 잠자는時間 派出所의 빨간燈도 깜박깜박 졸고있는 이時間에 언제나 지나가는 자람들이있다 千날 萬날 그時間正刻에 (몇時인지 모르겠다) 똑같은 얼굴들이 똑같은 미아리 고개ㅅ길을……

머리에는 광우리를 이고 등에는 갓난애기가 잠자고있고 왼손에는 세살나는 꼬마 집아이가 이끌려가고 열두어살나는 머슴이아이는 지게에 잔뜩 무었인가 지고 앞장을서서。이렇게 四人一體의 戰國態勢는 숨기여 가는것이다 그들의 眼孔에는 셋별같은 불이 흐르고있다 그것이 어둠에도 똑독히 보인다

出現 계장이밀의 防肉의 숨김없 必勝制覇의 氣槪가 躍動하고있다고해서 誇張이라고 하겠는가? 生과 對決하는 悲壯한 그들의 戰國態勢는 設使도 그들에게勝利가없다해도『무었이든 이루어보겠다。해봐야한다』는 決意가 아니겠는가 貴한것이 아니겠는가 그로록 애써 얻은 人生의 結實이 安閑한 婦들의 黃色幸福 보담 얼마나 崇高하겠는가 이것은 구태여 古人의『人生은 값싼것이 아니라』는말을 빌려서가 아니다 學生諸君에게 이와같은 必勝制覇의 氣迫과 意慾이 물꽃처럼 타올랐던들 우리에게 六·二五慘禍는 없었을지도 몰은다 이처럼 歷史는 學生諸君에게지나친 慾求와 態勢를 바라고있는것이다

原稿募集

今般本大學校法政大學 學會學報를發刊하고저 左記와 如히 原稿를募集하오니 先輩諸賢과 會員諸位의 많은 投稿를 바라는바입니다

記

一、研究論文 五〇枚內外(二〇〇字一枚單位)
一、翻譯文 〃
一、文獻紹介(資料) 〃
一、期間 自六月十日 至九月五日 隨意
一、提出處 政治學會學術部

四二八九年七月五日

法政大學政治學會 白

人事의말씀

우리는 全國大學新聞에從事하고있는 學生記者들의 相互親睦과 資質的向上을 圖謀하기爲하여 지난 六月二十日에『全國大學新聞記者協會』를 結成하였읍니다 그동안 本協會의 結成을 보기까지에는 先輩諸賢의 積極的인 協助가 많었음에 對하여 會員一同은 眞心으로 感謝의 뜻을 表하는바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大學의 權威確立과 學園言論의 暢達을 爲하여 共同步調를 取하며 나아가서는 大學新聞에 對한 不當한 干涉을 斷然코 排除하고 大學新聞의 眞正한 自主權을 確立하기 爲하여 奮鬪努力하고저 하오니 先輩諸賢께서는 우리들의 趣旨에 贊同하시와 더한층 指導鞭撻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은바입니다

檀紀四二八九年六月二十七日

全國大學新聞記者協會

幹事

尹銘重 吳景熙 李圭鐵 李應馥 盧琅煥 權五中 金石中 鄭日相 宋在根 金南甲 朴晋緖 吳順弼

大學新聞社 高大新聞社 中大學報社 週刊學報社 延世春秋社 國際大學報社 國學大學報社 東亞大學報社 東大時報社 檀大學報社 弘大週報社 新興大學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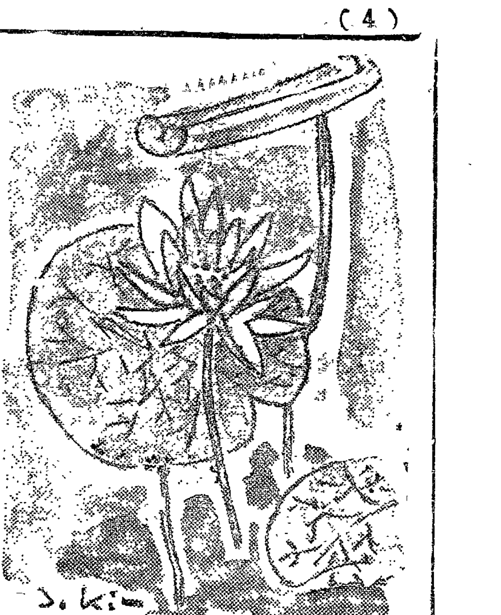
本校生特別廉價販賣期間
自7月1日 至7月20日 15日間

鐘路三街 로ー타리 至乙支路 至光化門 入樂園洞口 鐘二街 빠스停留場 國都企業

大學生夏服納品場所는
鐘路3街6番地(未完成茶房3層)
國都企業株式會社로

現代의自由理論
라스키ー所論을中心으로

大學院政治科 閔丙光



民主主義는 自由에對한 政府의 干涉을 可能한限 많이 덜기 爲하여 生覺해낸 考案이다C·렛쎄르」

(一)

政治支配라는 것은언제나 個人에 對한 約束을 意味하고 따라서 國家의 權力的 支配와 個人自由와의 사이에는 恒常 緊張的 對立關係에 있게 되는 것이다 現在까지의 論者들의 命題도 이 國家權力과 個人自由를 如何히 調和하느냐에 集中되었다 各時代에 提起된 自由主義는 반드시 그 社會를 構成하는 成分 또는 各己의 時代에 存在한 國家理論과 歷史的 條件과가 結付되어 成立된것이다 그러므로 社會進展의 歷史的 推移에 隨伴하는 政治構造의 變化가 歷史的條件에 相應되는 相對的인 適應性을 喪失할때는 다시금 權力支配와 個人自由와를 架橋할 새로운 理念이 擡頭치 않을수 없다 現在 資本主義와 함께 隨伴되어 提唱된 自由主義는 그 妥當性의 根據가 危機에 處하게되므로써 自由와 支配와를 調節할 새로운 示圖가 나타나지 않을수 없게되었다

故로 自由의 危機를 克服하는 方法과 條件과를 模索하려는 轉換期의 自由理論을 硏究하는것이 決코 無意味하지는 않을것이다 더욱이「불쬬아지」의 權力支配의「이데오로기」로서의 自由理論에서 이에 反對되는 被支配大衆의「이데오로기」에로의 過渡期的理論을 形成한 現代自由論은 民主主義의 問題와 더불어 많은關心을 끌게하는 것이다

勿論 現實世代는 그 考察할 對象이 過渡期的 混亂을 提示하고 또 新社會哲學이 切實히 要望되면서 많은역側이 流行되고 있어 政治理論의核心을 이루는 自由理論을 完全히 解明할수는없고 다만이 少考에서는 그條件만을 生覺해보려는 것이다

(二)

그러면 自由는 무엇인가 自由의 根本的인 要請은 個人의 自律과 그 人格의 獨立이며 이의 實現은 外部的 拘束의 除去로서 可能케되는 것이다 이것을「칸트」는 消極的 自由로 分離시킨다 即「自律」은 消極的自由이고「强制」=拘束의 除去는 積極的自由라고 表現한다 이와같이「홉스」는 모든것을 할수있는 權利라하고「룻쏘ー」는 慾望充足의 可能性이라고 說明한다 以上에서 綜合해본다면 自由는 서로 다른「人格의尊嚴」을 原理로하며 各人의「神聖不可侵」의 個性으로 人格을 갖고 그人格의 自律」을 基礎로 하므로 어떤「拘束과 壓力도 必要로 하지 않는것」을 意味한다 이 같은 自由는 人格을 갖는 慾望充足의 行爲에 있어서 理性에 立脚함을 要하며 이를 達成하려 할때는 自由는 約束에서의 逸脫과 權力으로 부터의 不干涉이 前提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人間은 自身이 自己의 人格 또는 다른 모든 人格中에 있어서 同時에 人間을 目的으로 함을 要하는 行動을 해야될다 換言하면「몬데스큐」가 表現한「自由意志에 依한 行動」과 함께 自身이 自己에게 할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行爲는 他人에게 안해야 되는것이다 이것이 自由의 定義이다

그런데 自由는 放恣와는 勿論 區別되야한다「라스키」는 自由를「全體로서의 自由」=「리버티」와「個體로서의 自由」=「프리덤」으로 分離하는 것은 適當한 方法일것이다

그러면 自由獲得의 歷史를 敷衍하기로 한다 첫째로 十五世紀初에서 同中葉에 걸쳐서일어난 一連의 宗敎運動이 있다 法皇의 專權에 抗拒한「룻터」의 改革主唱은 우리에게 信仰의 自由를 賦與하였다 둘째로 一六八八年以後 一七七七年의 事件과 一七八九年의 佛蘭西革命은 人間의「政治的 自由」를 再來시키는 契期가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前記 兩事件으로『불쬬아』階級을 選成케 되였고 이에 否定的 要素인「프로레타리아」階級의 通出이있게 됨으로써 從來의 政治的 自由는 經濟的 自由로 그核心을 轉移하게끔 되었다 卽「自由가 아니면 주검을 달라」는 絶叫로 變하게 된것이다 이런 絶叫는 人間生存을 爲한 切實하고도 安當한 要求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宗教의 自由」「政治의 自由」와 決코 背馳되는것이 아니고 兩者와 더불어 密接히 結付되어 調和를 꾀하여야 할것이다

이 三個의 自由를 如何히 調和시키느냐에 現代民主主義의 試鍊과 使命이 있다하겠다「라스키」가 여기에 果敢히 突入함으로서 現代의 危機를 打開코저 努力을 傾注하였다는 點에 그 意義는 크다

(三)

「라스키」의 自由理論은 어디까지나「프루라리즘」의 國家理論에 立脚하고 있다 그 主著「政治學綱要」까지에서는 國家라는것도 하나의「部分社會」(아쏘씨에이숀)으로서 宗教團體나 다른 모든 社會集團과 何等의 差等에 亂置하지 않는것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政治學綱要」의 諸術을 契期로하여 그의「多元主義」는「社會主義」에로의傾向을 內包하기 始作하였고「現代國家에 있어서의 自由」를 거쳐「現代革命의 考察」에 이르러서는 完全히 計劃的民主主義者로서 社會主義에로 歸着되고있는것이다 그의 國家觀이 이같이 變遷됨에 따라 그의 自由論도 變質되었다「政治學綱要」以前에서는 自由라는 것은 個人欲望의 充足過程에 있어서 外部的 拘束의 缺如로 定義하여 權力的 支配와 自由와를「프레믹」(辨證的)한 關係로 生覺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의 理論은 十八世紀的인「自由의 自然的 秩序」或은 古典的 自由放任主義와는 位置를 달리한다 또한 그는「全體로서의 自由」(리버티)와「個體的 自由」(프리덤)과를 區別하고 있음은 이미 指摘했거니와「라스키」에 있어서는「리버티」의 保障을 爲해서 分割된 諸「프리덤」이 必要하게 되고 이「프리덤」의 確保야말로 自由의 條件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資本主義的民主主義가 發展해 감에 따라 實質的으로 國家主權은 資本家階級에게 歸屬되기 始作하였다 여기에 그는 一九三七年「政治學綱要」第四版에서「近代國家理論의 危機」를 痛感하여 一便으로는『불쬬아』的自由主義를 克服하고 他方으로는 國家成員의「코몬니드」의 充足으로 變質되어 階級國家觀으로 轉移되기 始作하였다 여기에 그의自由理論도 變質되어 完全히「프레믹」한것으로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資本主義的 經濟構造가 撤廢되고 社會主義的 經濟構造에로 移行되면 國家權力支配로서의ー과 個人自由와는 相互間「機能的」(평쇼날)인 連帶性을 回復할수있다는 것이 그의 自由理論의 窮極的思想이었던것이다

周知하는바와같이 近代自由主義는 市民階級의 絶對制에對한 反抗으로서 그性格은 絶對主義克服을爲한 市民階級의 政治的「이데오로기ー」로서 形成된다 따라서 個人自由를 獲得키爲해서는 絶對權力으로부터 個人의自由를 守護치않으면 안되었고 이를 爲하여는「强制로부터의 自由」와「權力에 對立되는 自由」를 擁立해야만했다 即權力의 弱化와 個人自由의 最大現은 主張하게된것이다 이리하여 市民階級은「拘束의 缺如」와「强加로부터의 逸脫」을 要求하게 되었다 이러한要請을「自然權」「自然法」等에 歸依시키므로서 그들의 理論的 支柱를 堅固히 하였다

이같이 初期自由主義에 있어서의 自由는「拘束의 缺如」로서 그들의 地位를 確保하는데 成功한 것이다 그러나 自由資本主義가 發展해 감에따라「불쬬아」계급의「拘束의缺如」에서「權力의掌握」으로 轉換하였다 이리하여 權力을 掌握한新興市民階級은自由放任을 認定하여 人間은 自由精神이 있어야하고 平等하게 살아야하며 友愛로서 살아야 한다는 信念은 理想主義者의 希望에 不過하게 되었고 이런生活은 各人의「德力」이나 어떤「運命」에 放任해 두어서는 無秩序的인「렛쎄페」의 狀態로 흘러 一群의 榮華代身에 多數民衆의深刻한 貧困을 招來하고야 말았다 이같이「리베랄·데모크라시ー」의 段階에 있어서의 自由는「불쬬아ー지」의 利益을 爲한 國家機能의最大化」의「이데오로기ー」였다 그렇다면 여기에「불쬬아지ー」의 支配에 對抗하는 被治者의 政治的「이데오로기ー」로서의 自由主義는 必然的으로「拘束의 缺如」나 더불어「權力에로의 自由」라는 復合性을 띠게되고 權力支配와 個人自由와의 關係를 理解하는 問題도 새로운 樣相을 갖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即 國家機能의 最少化에 反하여 個人自由의 最大實現을圖하는「불쬬아·데모크라시ー」에서 大衆의 自由의 實現에로의 移行이 不可避하게끔 될때는 消極的 國家機能은 積極的 國家機能으로 變轉하여 自由主義도 被支配大衆의 政治的「이데오로기ー」를 造成해야만된다 이같이「불쬬아」的 同質性에 基礎를 둔 政治社會가「反統勢力」이 대두되므로써 異質的 社會라는 與件下에서 近代國家의 性格은 變質되어 權力支配와 個人自由의 關係도「調整的」으로 解決되지않으면안된다(끝)

東國 詩壇

『아무데도 없는通路』

成永洙

창으로 소중한 우리들의 時間이
텅빈 항아리안에 가만 가만 쌓여갔다

나무의 靑春이 그리운
늙어진 死化地帶에서
새벽은 鍾의모습을 닮어간
가슴팍을 흘러온 흥줄기

검은 네거리 길을견디어온
純情의 鍾身과
아무데도없는 우리들의 出入口。

그出入口 앞에서서
自己들의도라옴을 기두리며
鍾처럼 울다가 죽어간 사람들

사람들의 前面에 그는진 서름밖으로
사람들의 無限한 通路를 마련하는
時間ー

그 아래 저몇만리 밀바닥에서
솟구치는 生命의 音響에
귀기울리는 선한 가슴이여…

(哲學科)

現代詩學의問題

A·매끄리ー슈

(完)

그러나 이슬들 以上의것을 안다 우리는 우리自身을 안다ー흑을 그것이 우리를 찾아올때의 뜻을ー 그리고 우리自身의 그 무엇을 알게된다

둘째는 ー情緒의 죽음을 自體보다 더알기 힘든感情의 詩이다

셋째는 기쁨의詩이다 즉 기쁨과 靑春ー世界의 아침ー情緒 모든 情緒에 關한것 가장먼추기도 잡기도 보기도 힘든 그것들이다『기쁨의觸手가 이별을 告하는 입술에 다았는다』 어떻게 당신은 당신自身속에 있는 즐거움을 알것인가? 그리고 당신 自身이 기뻐하고 있는것을 神靈學者가 당신에게 달할것인가

당신을 위해서 잡을수 있으며 살려고하는 抽象의 全紙속 그 어디에 定義가있는가? 『치엔 원 티』=『바리』의 번역은 살아저가는 微笑를 붙잡아두는 단 하나의 겨울을 안다

즉 藝術의 겨울 詩의 겨울

> 『아름다운곳은 『로얏』의 거리이다
> 큰 거리는 봄 빛에 넘쳤으며 어린아이들은 손에 거문고를 지고뛰놓네
> 뽕나무 少女들은 손에 손에 바구니를 지고 들로 간다
> 금빛 채죽은 말 엽구리를 치며 꽃소매는 푸른 나무가지를 스친다
> 닥아오는 黃昏에 馬車는 집으로 돌아오고 少女들은 바구니 가득 열매를 딴다

당신이 보다싶이 이 世界속엔 우리自身인이 世界속엔 뜻을 抽象함으로 인한 知識의 可能性은 없다 즉은 우리가 希望하고있는것이 意味 일것이라는 그곳엔 우리自身으로서의 事物을 알아바야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는 우리일것이다 다만 藝術과 詩마니 그 對決을 招來 할수있다 왜냐하면 다만 美術과 詩마니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것과 그것을 對決하고있는 우리自身을 보여줄것입니다

詩에 對해서 無識하다는것은 世界에서 엔은 우리에 經驗의 世界에 到達하는 方法에 對해서 無識하다는것이다 그리고 그世界에對한 無識은 우리가 누군지 무엇인지에 對한 無識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對한 無識은 우리가 어떤道具를 갖고있던 어떤知性과 才操를 갖고있던간에 實體를 파악치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있는 時代의 悲劇인 不安感이며 不可能이다 우리는 精神的인 不感症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自身을 詩에서 짤라내 왔기때문이다 그리고 그 비교임은 우리가 얼마나 不氣力 했였나를 알수있는 詩속에서만이 있는것이다

왜 이科學的인 時代에 詩를 가르키는가? 그偉大한 二者擇一을 나타내는것은 科學에對한것이 아니라 科學이 주는 抽象에依해서 얻어지는 知識에 對한것이다

이 偉大한 二者擇一은 무엇이냐? 詩의 使命이 아니라 詩의번역된 意味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역시抽象들이며 科學의그것보다 훨신열등한 抽象이다。 그것은 詩的인「스ー도의 설명이아니다 왜냐하면 멀리가지못하는 詩的 리스트는 오로지 抽象의 世界에서 끝난다。아니다

偉大한 二者擇一은自體로서의詩이다。詩로서의詩는 藝術作品으로서의 詩즉 藝術作品만이 存在하고있는 文脈속에있는詩이다。世界의文脈即사람은事物이 우리生活인 無限한 世界의文脈이다

偉大한 二者擇一을提議한다는것은 병속에있는 멧세지로서가 아닌 詩를 나타내는것이 살지않은 風景속에 對象으로서가 아니다 그러나 世界에있어서의 行動으로서 卽 行動 그속에서 우리自身이俳優들이며 우리의 生活이 알게되어진다ー끝ー

(編輯調査室)

隨想

夏愁와 향아리

宋希英

적은 바람이 窓側을 스쳐갈때나 或은 꽃잎이 깨끗한 돌앞에 나릴때 우리들은 어디서부턴가 밀려오는 憂愁에 젖는다

少年의 感受性이 때로는 興味있는 生氣를 불러 이르키는 境遇가 있긴 하지만 成長이글어질수록 荒原한 胸圍의 歸寂을 発할수 없다는것이 正午期의 자랑인상 싶다

한갓 파릇 파릇한 少年性으로부터 嘆息의 虛虛直前에서 孤獨에의 등신이 되어간다는것은 무서운 性格的 破綻인 同時에 亦是 처음도 끝도없는 쓸쓸한 이야기가 된다

어떤 意味에 있어서 人間의 營爲는 孤獨의 作業인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흔이 우리의 眞實한 可能性 마저도 無關하려하는 幻想에게 占領되어버리는 例外가 있거니와 이것도 事實은 哀愁圈域의 精神的偏差때문이라는 것을 記憶하지 않으면 않될것이다

忽然『항아리』라는 허전한 名詞를 想起하고 無識한체 하는것은『항아리』가 近代神話에 있어서 女性의『젬볼』로 引用된다는 詩의 技術者들ー젬볼리스트의 機能及關心을 適用하자는것이며 욱 않음은 勿論이다 그것은 出生當初부터 지니고있는 素質과機能 乃至 觸手以外는 啓蒙될 必要도 다른職能을 强要當할 理由도없는宿命地帶의 것이기도하다 때문에 無限히 解放되어있는 自由放任이있는가하면 音響없는 꿈역자리『꿈』이기도 하다는 말이된다

그래서 年輪이 몸둘레에 감돌아 갈수록孤獨해지는것이 根據없는 그의 思想이요 倫理라는 그의職務上 領域이 出發되는 것인가한다 貧寒한 자욱대 위에 그의安住가 되어 있을때 일수록 그의 뼈아픈 슬픔은 內部에로 侵投할것이리라

그때 그는 열려저있는 입의 無限한 自由로 말미아마 지나친 가난의 아픔을 生覺할것이다

그것은 善良한 人間의 內的財源缺乏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서러운 自己窮運에 關容없는 感激과 意味없는 餘裕에 잠겨 있을때가 많은것 같다

『항아리』는 孤獨하다 그孤獨은 말라붙은 大地의 香氣보다도 淸淸한 山頂上을 잠겨가는 푸른 메아리과 같은것이 아닐까

먼 村落과 골목길ー산 골짜기에서 모든 部市의 떨평위에서 孤獨은 茂盛하여가고 들의것은 부피속에서 그深速한 肉身속에서도 孤獨은 破片처럼 남어있는것이 아닐까

어떠한 高層집 階段을 오르고 나리는 再會를에서 술을 드리킨 香이 動脈을 絶斷하여 품는 피를보고『부타보』를 외친데도 우리의 밀바닥 그밑에 底流하는 憂愁를 잊을수는 없다

오래인 神性이 남아있는 宮殿안에도 大旅行家의 눈시울과 中世紀의 廣告紙위에서도 怨誠스런 우리들은 原始的孤立을 느낀다 자라리 死火山에서 名譽스런 思想의 噴出을 期待한다 하더라도 무수한 誤謬에 쫓기는 우리의 指導者들이 素朴한 人生의 職工처럼 感傷的이 될수 없다는것은 은 일이다

孤獨은 자라가는 植物과 같다

菜會社長의 表正이 카페의 숭자리에서 계집의 무릎에서 너그러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문듯 憂愁를 느끼다 그때우리의 마음의 밑어를 돌아가는 그가느다란 그늘을무어라할까

大概의 우리들은 健康한 思想보담도 極히 病的인 思想의 담장가에서 病들어가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이로 因하여 現在보담은 훨씬 좋와졌을우리의 境遇가 共通된理念의 不健實때문에 現在的인것을 그만큼 苦痛꺼리로 生覺하고있는듯 하다 이것은 밤은 怨망과 어두운 室內가의 差異에서 오는 우리의 理解의 打擊과 갈은것이다。ー고독은 우리의 뿌리깊은곳에서 자라가는 音響과 같다

한없이 귀를 모으는 그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切實한 意味로 오는 눈부신 서름을 주는것이 아닌가。(英文科)

刑罰로서의死刑論（下）

法科三年 白甲秀

三、死刑存廢論及 그批判

死刑을 存置할것인가 廢止할것인가에 對하여 現代에 있어서는 大端히 論議되고있다함은 前述한바이므로 여기에서는 重複을 避하고 다만 死刑存廢論의 根據가 어디 있으며 또어떠한說이 있으며 그說이 果然 安當한것인가를 論하고저한다

(가) 死刑存置論ー이論은 死刑이 갖이고있는 威혁力과 應報的 正義感의 滿足을 根據로하고있다

即 犯罪人에 對하여 生命을 剝奪하므로써 一般人은 畏怖하게 됨으로 一般豫防的 機能을 가장 充實히 發揮하고 이러므로써 犯罪를 防過할수 있다고하여 또 惡逆한 犯行에 對하여는 死刑이 應報로서는 最高의 刑罰이라는것이다 卽 國民正義의 要求하는 面에서、死刑은 存置하여야하며 刑罰로서의 效果가 充分하다고 한다

이 論은 現代에 있어서는 많은 批判을 받고 考慮와 修正을 要求하고 있다 '刑罰은 犯罪人에 加하는 害惡이 아니고 犯罪人을 다시 社會에 適應시킬수 있는 有能한人物로 改善시키는 手段이라는 點에서 生覺하여 볼때 刑罰은 犯罪人에 科하는 害惡이라는 應報主義思想은 今日의 刑事思想으로서는 낡은 思想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이러한點에서 死刑存置論은 그自體가 批判과 修正을 要하지만은 또後에 나오는 死刑廢止論에서 指摘하는 諸矛盾을 死刑이 內包하고 있기때문에 實際오늘날의 이論은 意義가 없다 그러나 過去에있어서 이存置論이 刑罰史上에 있어서의 功績도 看過하여서는 안될다고 하겠다

(나) 死刑廢止論=死刑廢止論이「베카리아」를 始初로하여 不斷히 今日까지 論議되고 있다함은 前述(死刑의 過去를 參酌)한바이다 이 論의 根據는 一樣하지 않으나 大概 다음의 三個의 論據로 分類하여 論할수있다 이러한 論據들을 細密하게 說明한다는것은 困難함으로 要約해서 說明하기로한다

(一) 人道主義的 死刑廢止論=이廢止論은 基督敎思想으로부터 出發한것으로 人이 人을죽이는것은 惡이며 이러한 生覺은 나아가 死刑을 否定하여야 한다는것이다 即 國家가個人間의 殺害行爲를、惡이라고 規定하면서 어째서 國家는 아무리 犯人일지라도 犯人의 生命을 剝奪하느냐 이亦是 惡이라고 하는것이다

「톨스토이」는 나는 沈默할수없다 라는 作品中에서 또「도스도에프스키」는 白痴라는作品中에서 各各 人道的인 立場에서 死刑을反對하고 이들은 人道的인 死刑廢止의 中心思想을 이루었다 이思想은 最近「보ー리스」「자귀ー르」에 依하여 法律的으로 說明됨에 이르렀고 人道的인 思想의根底에서 死刑廢止論을主張하는 學者들도 不少하다

(二) 誤判을 理由로하는 廢止論ー神이 아닌 人間이 裁判하는以上誤判없이 完全하다고 할수없다 故로 萬一에誤判으로 死刑을 執行하였을때無罪人이 生命을剝奪하게된다 그러므로이런사람은 國家에依하여 殺害되는거와 같으며이러한 사람의 生命을 다시 救濟할수는없는것이다 이와같이 誤判을豫想할수있는 救濟不可能한 死刑은 廢止되어야한다는論이다

이論은「리ー프만」에 依하여 더욱 强調되었는데 이論은 一理있는 說이며 오늘날 많은 學者들의 支持를받고있다

(三) 被害報償을 理由로하는 死刑廢止論ー이 論據는 犯罪人을 爲主로하지않고 被害者側을 爲主로한點에서 上記理由들과 다른點이特異하다。

今日의 死刑制度는 犯罪人을 殺害하는것뿐이고 被害者및 加害者의 遺族에 對한 救濟를考慮하지 않음으로서 일어나는 두가지 惡結果를 招來하므로 死刑은 廢止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論이다。

即 被害者의 遺族은 犯罪人이 死刑當하므로써 感情的으로는 救濟되지만 被害 例를들면 被殺當하였다고 할때에 그被殺者가 그家族의經濟權을 쥐고있을때에그 사람을 잃음으로써 일어나는 生活窮迫에 對하여 救濟가 없음으로 이들은 生計를 維持하기爲하여 不正한 手단을 하게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犯罪原因을 招來하는 惡結果를 發生하게하며 또한편으로 加害者의 遺族도 上記와 같은 境遇에 經濟權을 갖인 犯人이 死刑當하므로써 그遺族은 生活이 困難하여져 犯罪의 原因을 造成하게되는惡結果가된다고 한다。이더한두가지點으로 볼때에死刑은 結極 國家社會에 窮迫을 招來하게되고 또한 犯因을 造成하게되여 混亂만 일으킬뿐임으로 참다운 犯罪防遏의 效用을 할수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死刑을 廢止하고 無期刑으로 代置케하고 犯罪人을 勞役場에 處케하며 그勞賃으로 報償케하여 廢端을 防止하자는것이 이論의 要旨이다

本人도 이論에 對하여서는 積極共鳴하는 바이다 이論은 學者들間의 많은 支持를 받고있으며 現代各國의 刑事學者들은 이論을 많이 滲酌하여야 될줄로 믿는다

不備하나마 以上이 死刑을 廢止하자는 三個의 理論인데 이理論들은 다重要하며 意義가 있어 어느 한理論만을 肯定하고 他理論을 否定하여서는 完全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卽 이三論은 廢止論의 要件이라고 하겠다 그러나學者들間에 있어서는 어느 一面만을 重視하고 他面은 輕視한다든지 또는 他一面만을 輕視한다든지 하는경은 否定못하는事實이나 그렇다고 一面만을 肯定하고 他面을 否定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注意하여둘 必要가 있다。

이外에도 死刑을 廢止하는 論據로 死刑은 事實上 犯人및社會에 對하여 威嚇力이 적다 死刑은 一般人들이 生覺하는것과같은 多大한 苦痛이 있을까하는 疑問이 있고 死刑이 넘무나瞬間的이라는것。死刑에는 程度의 差를 認定할수없다는것等을 들고있으나 이것들은 그다지 重要한 說들이 못된다고 보겠다

四、我國現行刑法에 있어서의 死刑

死刑은 刑務所內에서 絞首하여 執行한다(刑法六六條)고하였으며 死刑을 執行하려면 法務部長官의 命令을 必要로한다(刑訴五三八)고하였는데 이는 人命을 尊重하여 死刑의 執行을 愼重하게 하기爲함에이라고 보겠다。法務部長官이 死刑執行을 命令하였을때에는 五日內에 그執行을 하여야하며 (刑訴五四○條) 死刑의 言渡를 받은者가 心神喪失의 狀態에 있거나 또는 懷胎中의 婦女일때에는 그 刑은 執行을 停止한다(刑訴五四三條) 고規定되여있다

그러면 現行刑法은 이러한 死刑을 얼마나 規定하고있는가를 알아보기로한다 絶對的으로 死刑만을 科하는 境遇는 단하나 九三條 (敵國과 合勢하여 大韓民國에抗敵한者는 死刑에處한다)이다 그리고 死刑과他刑과를 裁判官의 裁量에 依하여 選擇的으로 科하는 境遇가 十六個條인데 列擧하면 刑法第八七條二項·八八條·九二條·九四條一項·九五條一項二項·九六條·九八條一項二項·一一九條一項二項·一六四條·一七七條·一八八條·一九四條·二五○條一項二項·二五三條·三三八條·三四○條三項을 規定하고있다 이外에도 死刑을規定하고있는特別法들이 있다

이와같이 現行刑法은 死刑規定을 많이두고있으나 多幸스러운것은絶對的死刑規定이 一個條만있고 그外에는 死刑과 他刑과의 擇一的으로 科하게 되어있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法을 實際運營하는 實務家들이 死刑을 愼重하게考慮하여 可能한限 死刑을 避하도록 할것이다 死刑規定은 비록많으나 實務家들이 잘만 運營한다면 死刑規定은 空虛한것이 될것이며 또 一般人들도 이點을 生覺하여 積極協力하여야 할것이다 비록 死刑規定은 있다하드라도 事實上 廢止되고 있는 國家들도 있으니 만치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點에 有意하여야 할줄로 믿는바이다

五、結論

簡單하나마 以上으로 大概 刑罰로서의 死刑論을 말하였다고 볼수있겠다 要컨대 死刑의 存廢는 各國의 思想感情 風致 또는 政治的 變革에 依하여 各具體的인 境遇에 그眞價判斷이다를것이며 或은復活(一八八九年 伊太利 刑法이 死刑을 廢止하였는데 其後 首相에 對한狙擊이 甚하였음으로 死刑復活論이 擡頭되여一九三一年 新刑法에서 死刑을 復活시켰든것이다)도하고 廢止도 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各具體的인 境遇이고 一般的으로 死刑制度는 廢止되여야 할것이다 또 世界刑事思潮도 事實이렇게 흐른다는것도 事實이라고 하겠다

犯人이 사람을 殺害한行爲를 惡이라고 하면서 國家自身이 人命을 剝奪한다는것은 結果的으로 應報가 아니라 할수없으며 또 死刑이 犯人에 對한 永久隔離의 效果가 充分하다고 하지만 死刑이아니드라도 이와 同一한 效果를 選擇할수있는他 刑罰이 없다고는 할수없다

그러므로 人命을 害하고 無用한 死刑을두느니보다는 人命을 保持하고 또 實際 社會에도 有用한 刑罰로하루 速히 代置 하여야 할줄로 믿는다 이것이 바루 不定期刑인 것이다 不定期刑에 對한 運動은 世界到處의 刑事學界에서 보이지만 이것이 더욱 實現되려면 낡아빠진 應報刑主義思想이 살아지고 敎育刑主義思想이 世界刑事思想을 支配하게 되는날이라고 하겠다 이思想은 아득한 天國에 있는 思想이 아니고 現時代에 있는 思想이며 이思想은 時時刻刻으로 世界刑事思想을 支配하여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對하여 樂觀을 表示할수 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死刑이 世界어느國家의 法條에서도 찾아볼수없도록 우리들은 努力할것이며 또한 合理的인 不定期刑이 確立되기를 빌며 한사람이라도 生命을 잃어지는일이 없기를 念願하면서 未備하나마 以上으로 本論을 끝맺는 바이다 (끝)

‖連載短篇‖

壁

싸르뜨르作
洪淳旻譯

그들은 법석대며 떠나가고 나는 창을든병정들의 감시 아래 태연하게 기다렸다 그들이 어떤 꼬락산이를할 것인가 생각하고 나는 때때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명청해져서 작란만 하고 싶었다 그들이 무덤 돌을 이르켜 놓고 매장한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여는양을 상상해 보았다 마치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나 처럼 나는 나의 처지를 그려보고있었다 고집을 부려 영웅을 만드러 놓는 이 포로라면가 수염을 길른 이 장엄한 창을가진 병정을 또 그리고 무덤사이를 뛰여 다니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억제할수 없는 희극이였다

한 반시간이 지나서 꼬마 똥똥이가 혼자올라왔다 그가나의 처형(處刑)을 명령하려온것려니 생각하였다 남어지 다른 사람들은 묘지에 머물러있을게다 장교는 나를처다 보았다 조금도 맥둘린 낯색이 아니에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큰마당으로 이칭구를데려가게 작전이 끝나면 정규 재판에서 결정될테니』

나는 그의 말을잘못 알아들었는가 싶었다。

『그럼 나를 나를 총살하지는 않나요?』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후의 일은 난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영문을 몰랐다 나는 그에게말하였다

『그런데 왜요?』

그는 아무 대답없이 어깨를 주춤하였다 그리고는 병정들이 나를 데리고나갔다 큰마당에는백명가량의 포로가있었다 부녀자도 있고어린애들도 있고 늙은이도 얼마간 섞여있었다 나는 한복판 잔디밭에레를 돌기시작했다 얼빠진사람 같이 되어버렸다 오경이 되자석당에서 밥을 먹게해주었다 두세 친구가 나에게말을 걸었다 아마도 내가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이지만 나는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어데 있는지 그것 조차 이미 풀렸다 저녁 무렵에 새로히 열명가량의 포로를 마당으로 밀어넣었다 빵장수 가르씨아가 눈에 띠었다 그는 나에게말하였다

『재수도 좋군 그래! 이렇게 살아있는 자네를 다시 볼줄이야 생각이나 했겠나』

『사형 선고를 했었는데 그네들이 생각을 곤쳤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두시에 붙잡혔다네』하고『가르씨아』는 말했다

『무엇때문에?』

『가르씨아』는 정치운동을 하지않았었다

『모르지 그네들은 그네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사람은 붙잡으니까』누구나 모조리 그는 목소리를 나추었다

『그리고 결단났어』

내 몸은 떨리기 시작했다

『언제?』아침

『오늘?』어리석은 짓을 했거던 그자들의 귀에 말이 들어가서 지난 화요일 날자기 자촌네 집을 떠났지 숨겨줄 친구가 없는것이 아니었지만 누구에게든지 폐를 끼치고 싶어하지 않았지 이렇게 그는 말을 했나봐(이비ー따네 집갈으면 숨겼지만 붙잡혀버렸으니 묘지에나『오려 갈데야』

『묘지에?』

『그래 그거 바보 짓이지 물론 그자들이 오늘 아침 묘지를 뒤졌지 있을 법한 일이었지 무덤 파는 사람네 집에서 발각되서 총에『맞아 죽어 떼졌어』

『묘지에서!』

모든것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땅위에 주저앉아 버렸다

나는 하도 웃었던까닭으로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끝)

六月의圖書閱覽統計

本校 圖書館에서 알려진 六月分 圖書閱覽統計를 보면 다음과같다

閱覽者數 男五、六〇〇名 女一一四名

閱覽圖書數 二、五三八冊

그런데 이를 各大學別로 보면

敎職員	二八名
佛敎大學	一八六名
文理科大學	一、八八八名
法政大學	二、七二〇名
農林大學	二六二名

A·토인비著
吳德永譯
產業革命史
四六判二七〇面
文硏社刊

懸賞原稿募集

本報에서는 夏期放學中 여러분의完全한休養과 意義있는 諸般事業에 多大한 効果있기를 빌며 左記와如히 放學期間中 懸賞原稿를募集하오니 多數應募해주기바랍니다

記

一、內容及枚數 (二〇〇字一枚單位)。
研究論文……………五〇枚內外
紀行文·體驗記………二〇枚內外
學術飜譯物……………四〇枚內外
創作(小說)……………五〇枚內外
詩及譯詩

二、懸賞詮衡
詮衡委員……新聞委員顧問及編輯局長
梁柱東、崔鳳守、鄭斗石敎授 趙殷澤·張元圭敎授
〃 日字……九月五日、六日
〃 發表……九月七日
施賞式………九月八日上午十時
懸賞金及物品
各種入賞 一篇 各壹萬圜整
各種佳作 二篇 各參千圜整
各種準佳作三篇 本報所定原稿料支拂

三、投稿期間
自八月十六日ー至八月三十日

四、投稿處 本報編輯局

五、其他
投稿에는 學年、科姓名을明記할것
投稿는 一切返還치않음
稿料는 揭載時마다支拂함

四二八九年七月 日
東大時報編輯局